

추
가
등
록

제 29차 평의원회의 버뮤다 크루즈 소통 / 화합 / 비전

2020/6/25(목)~6/29(월)
추가신청마감 2월25일

동문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주동창회는 제29차 평의원 회의를 평의원 및 일반 동문들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이색적인 행사로 4박 5일 간의 버뮤다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뉴욕 Manhattan Cruise Terminal에서 출항, 버뮤다로 향하는 이번 크루즈 여행은 쪽빛, 에메랄드 빛의 버뮤다 바다를 보며 제29차 평의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

주동문들과 가족들도 함께 참가하여 추억을 담을수 있는 기회입니다.

특히 주최측에서는 명망있는 각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심도 깊은 강의를 해줄 세미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문들은 다양한 분야의 색다른 지식을 얻는 기쁨을 느낄수 있을것입니다. 이와함께 동문들은 선상에서 자유를 즐기면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

그램(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 센터, 극장 등)을 이용하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동창회 모임의 목적은 동문간 협동과 친목을 나누며 단합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동문간 마음을 나누는 동시에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P20-21>

남가주 신·구회장단 이취임식

민일기 신임회장 취임... 신응남 미주 동창 회장 축하 메시지

지난 2월 1일 Norwalk에 위치한 Double-Tree Hotel by Hilton에서 2020년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5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용준 총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순서는 개회선언과 함께 정지훈 동문의 선창으로 애국가 및 교가 제창이 이어졌으며

강신용 상임이사가 내외빈을 소개했다.

특히 뉴욕에서 취임식에 참석한 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은 "새 비전을 준비하는 민일기 회장단의 출범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2020년 새해 미주동문 모두 함께 이 땅에서 더 깊은 뿌리를 내리며, 힘과 비전을 모아 용비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새 소망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한

다."고 회장단의 출범을 축하했다.

최용준 총무국장의 2019년도 사업보고와 박제환 재무국장의 재무보고 후 한귀희 회장의 2020년도 민일기 신임회장 및 최용준 차기회장 인준과 정기이사회 결의사항 보고가 진행되었다.

정기이사회는 지난 1월 16일 작가의 집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차기회장에 최

용준 동문이 선출되었다.

이에 한귀희 총동창회장이 이임회장단에 감사장을, 최용준 총무국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이어진 이임사에서, 동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민일기 회장을 위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후원해 주셔서 더 융성한 동창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란다"고 동문들을 독려했다.

이어 동창회기 전달식이 있었다. 남가주 동문을 대표하여 민일기 신임회장이 한귀희 이임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고, 민일기 신임회장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7면에 계속>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류재풍 (법대 60)

/ 특집 칼럼 /

한미동맹의 목적과 역할에 관한 제안(1)

2020년의 한국은 4월 총선 등 정치와 더불어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끝나지 않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방위비 압박 등 외교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건 '한미동맹' 일 것이다. 외교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서 발생하는 현안 대응이 늘 시급한 과제다. 이에 민주동창회에서는 전문가 및 저명한 학자들의 의견을 동문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특집칼럼으로 메릴랜드 Loyola 대학 사회학과 명예 교수이자 One Korea Foundation의 설립자 이신 류재풍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두 동강이로 나누어진 한반도의 남부에서 지난 세기 중엽 1948년에 태어난 신생 국민 대한민국은 수많은 '후진국들' 중에서도 밀바닥으로 처진 나라였다. 세상이 모두 못났다고 경멸하고, 불쌍하다고 동정하고, 바쁘다고 외면하는 대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었다.

(1)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10개국을 나열할때 마다 빠지지 않고 끼었던 나라 (2) 자치능력이 열악해 '한국인이 민주주의를 하기 보다는 쓰레기 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고 멸시 받던 나라 (3) 근대화의 기회를 놓치고 근 반세기간 군부독재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아 온 나라 (4) 남의 힘으로 겨우 얻어낸 독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신탁반탁' 싸움며 분단의 쓰라림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었던 나라 (5) 문명의 잔재를 몽땅 태워버리고 300만 동포가 희생되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3년간 치루며 갈기갈기 찢어졌던 나라... 그 시절에 살았던 개인들의 경험으로 보아도 자신과 자기 문화, 내 나라에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캄캄한 앞날을 바라보고도 피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서 다른나라를 부러워 하며 '우리 업전이 별 수 있겠어?' 등의 말을 부끄럼도 없이 말해도 당연시 되었던 서글픈 시절이 그때였다.

이렇게 한미동맹으로 상대적 평화시를 적시에 활용하여 조국중흥의 실현을 실천하게 만든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연...된다, '유비무환'

조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경쟁불가의 막강한 미국의 국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임무수행으로 북한 김씨정권은 남침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수행할 수는 없었다. 이리하여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국민대다수는 전쟁의 불안을 접어들수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one of America's closest allies and greatest friends.'"라며 한국과 한국인을 언급할때 마다 이 '기적을 이야기하며 후원자로서의 미합중국의 정부도 미국인들과 같이 덩달아 우쭐한 느낌을 가질수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 뿐 아닌 미국의 여러 지도자들이 당파를 넘어 이 같이 언급하였다.

미국은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자긍심 이상의 구체적인 혜택도 받았고 한국도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응을 하였고 한미동맹조약을 공약대로 실현한 사필귀정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2020년 1월 현재, 한미동맹의 미래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오랫동안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여 힘들게 이룩해 놓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풍요로움 뿐 아니라 앞으로의 존속가능성 자체가 압박을 받고 있는 믿음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다.

나라에 관한 어휘가 아니며, 부모에 관한 언급이지만 천자문에 나오는 여덟자가 우리의 현 상황을 묘사하고 해야 할 일들을 시사하는 듯 하여 소개한다 "臨深履薄 임심익박; 夙興湫漻속흥윤침". [대한민국은 현재 깊은 절벽위에 서있듯... 살얼음을 밟고 지나는듯한 상황을 지내고 있다... 우리가 할일은 하루 빨리 정신차리고 출고 더움을 가능하여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현재상황을 현실보다 더 나쁜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자성해 본다. 그렇지도 모른다. 가장 우려되는 적화통일의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50% 미만일지도 모른다. 현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현 정부 마음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50% 이상일 수도 있다.

걱정이 태산같이 잠 못이루는 밤이 많다.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80%라면, 사망 확률이 불과 20%라고 해서 안심하겠는가? 1월하순 중국 우한에서 발생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죽을 가능성이 0.1%가 안된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 손씻고 마스크 쓰지 않는가? 전세계가 그 작은 수치의 가능성에 떨고 있지 않는가? 생존의 문제는 통계수치로 단정할수 없는 독특한 문제로 특유의 반응만이 대처할수 있다.

'내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었다'던 나폴레옹의 자만은 '無備有患: 준비하지 않으면 우환이 온다'던 박정희의 소견에 비하면 10대 천재소년의 뜬금없는 고만으로 보여진다. 대한민국의 애국시민은 지금 호랑이 굴속에 들어와 있다. 퍼센트 따지며 내집 정리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다. 정신차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도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는것이 있다. 대한민국은 작지 않은 나라지만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하면 약소국이다. 지금이 바로 핵개발과 더불어, 한미동맹을 결속, 강화,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상호협력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2019년 미 국회는 한미동맹을 NATO 연맹 이외의 동조자로서는 제일 중요한 동맹이라고 결의, 발표 했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행적을 돌이켜 보거나, 보도를 통하여 듣거나, 직접 경험하면서 두 나라 국민 대다수가 '잘했다...고맙다... 좋다... 계속하자' 등의 우호성 반응을 하고 있다. 80%의 미 국민은 남북통일후에도

등의 귀연들과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 '중화학공업 육성' 등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 함으로써 오랫동안 놀려있던 한인들의 우수한 능력과 독특한 자질들을 모두 동원하여 이룩한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인 것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홀로 방어해내야 했다면, 엄청난 군사비를 각출해야 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산업화도 민주화도 이루어 지지 못하며 후진국상태를 벗어 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같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근대화 선진화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물론 동맹의 파트너인 미합중국이 받아 낸 혜택도 많이 있다. 오늘 근대화를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발전의 후원자로 자랑할 자격이 있는 미국과 미국민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주었던 것이다. 반세기에 걸친 미-소간의 냉전에 미국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빛나게 표출해 주는 상징이 된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인 것이다.

하지만 1980년대 중 부터 '업전'등을 운운하는 자화적 단어를 듣지 않아도 되었다. 기록된 있는 수치로 보아도 후진국의 향상불가능의 양상을 총체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던 나라(1945년 문명률: 78%, 1960 개인 연평균 소득 \$79 ; 1960 평균수명: 55세 등)였지만 처절함의 극치였던 3년 전쟁후 불과 40년만에 대한민국은 놀라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전세계가 인정할 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 하는 나라, 수많은 영역에서 첨단을 장악하여 타국민들이 공부하고 있는 나라, 관광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 산업화 발전을 뒤따라, 공산주의가 몰락할 1990대를 전후로 하여, 민주화까지도 이룩하게 된것은 세계사에 기록될 대단한 업적이다. 가히 경천동지의 변화를 지내온 한반도 근대사가 이제 쓰여지고 있다.

무엇이 이같은 '한강의 기적'을 불러 왔을까? 많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지적한 여러가지 요소들중에 예외없이 언급되는 건 한미동맹의 역할이다. '태평약지역의 평화를 위한 구조를 강화시키겠다'는 약속... 특히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자들은 미합중국과도 싸워야 할것이다.' 라는



최형무 (법대 69, 법률고문)

/ 시사칼럼 /

안보 현실과 사법 개혁, 그리고 민주주의

이번 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브록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2017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뻐 했으며, 북한의 오판으로 전쟁일보전까지 갔었다고 공개했다. 이같이 엄중한 현실에서 정치인과 시민들의 일부가 정부와 지도자를 비판하는 말투와 그 어조를 보면, 임진왜란때 한산대첩이라는 해전사에 남는 승리를 거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을 수년후에 감옥으로 보낸 조선 정치인들의 패싸움을 생각하게 된다. (당시 우의정 정탁의 상소로 그를 구해 주지 않았으면 이순신 장군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극단적인 분열 현상은 비단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의 분열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일부 정치 지도자와 시민들 사이에 상당히 공유되고 있다.

외국에 살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 안정을 생각하고 말하는 자체를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 사는 한인들을 과연 동포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한국에 한번 가 본적이 없어도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법률의 족쇄를 채워 놓아 미국 땅에서 공직 진출을 막아 놓고서도 "국민 정서"니 무어니 하면서 법 개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같은 동포로서 같은 동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동포로서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통해 있고 그동안 크게 발전한 조국의 일은 세계인

의 관심거리일 수 있다. 삼성사의 휴대폰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BTS 가 한국어 노래로 전성일보전까지 갔었다고 공개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큰 상을 연달아 받게 되어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국제성을 알고고 있다.

의 관심거리일 수 있다. 삼성사의 휴대폰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BTS 가 한국어 노래로 전성일보전까지 갔었다고 공개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큰 상을 연달아 받게 되어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국제성을 알고고 있다.

의 관심거리일 수 있다. 삼성사의 휴대폰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BTS 가 한국어 노래로 전성일보전까지 갔었다고 공개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큰 상을 연달아 받게 되어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국제성을 알고고 있다.

의 관심거리일 수 있다. 삼성사의 휴대폰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BTS 가 한국어 노래로 전성일보전까지 갔었다고 공개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큰 상을 연달아 받게 되어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국제성을 알고고 있다.

의 관심거리일 수 있다. 삼성사의 휴대폰이 세계를 휩쓸고 있고, BTS 가 한국어 노래로 전성일보전까지 갔었다고 공개했고, 영화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들과 스태프들이 큰 상을 연달아 받게 되어 한국 영화의 우수성과 국제성을 알고고 있다.

한국의 신문들 통해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놀라는 일들의 하나는, 커다란 법 체제 아래에서 자기 기관 위어나서 자라고 한국에 한번 가 본적이 없어도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법률의 족쇄를 채워 놓아 미국 땅에서 공직 진출을 막아 놓고서도 "국민 정서"니 무어니 하면서 법 개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같은 동포로서 같은 동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동포로서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통해 있고 그동안 크게 발전한 조국의 일은 세계인

한국의 신문들 통해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놀라는 일들의 하나는, 커다란 법 체제 아래에서 자기 기관 위어나서 자라고 한국에 한번 가 본적이 없어도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법률의 족쇄를 채워 놓아 미국 땅에서 공직 진출을 막아 놓고서도 "국민 정서"니 무어니 하면서 법 개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같은 동포로서 같은 동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동포로서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통해 있고 그동안 크게 발전한 조국의 일은 세계인

한국의 신문들 통해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놀라는 일들의 하나는, 커다란 법 체제 아래에서 자기 기관 위어나서 자라고 한국에 한번 가 본적이 없어도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법률의 족쇄를 채워 놓아 미국 땅에서 공직 진출을 막아 놓고서도 "국민 정서"니 무어니 하면서 법 개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같은 동포로서 같은 동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동포로서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통해 있고 그동안 크게 발전한 조국의 일은 세계인

한국의 신문들 통해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놀라는 일들의 하나는, 커다란 법 체제 아래에서 자기 기관 위어나서 자라고 한국에 한번 가 본적이 없어도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법률의 족쇄를 채워 놓아 미국 땅에서 공직 진출을 막아 놓고서도 "국민 정서"니 무어니 하면서 법 개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같은 동포로서 같은 동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동포로서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통해 있고 그동안 크게 발전한 조국의 일은 세계인

한국의 신문들 통해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놀라는 일들의 하나는, 커다란 법 체제 아래에서 자기 기관 위어나서 자라고 한국에 한번 가 본적이 없어도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법률의 족쇄를 채워 놓아 미국 땅에서 공직 진출을 막아 놓고서도 "국민 정서"니 무어니 하면서 법 개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같은 동포로서 같은 동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동포로서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통해 있고 그동안 크게 발전한 조국의 일은 세계인

한국의 신문들 통해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놀라는 일들의 하나는, 커다란 법 체제 아래에서 자기 기관 위어나서 자라고 한국에 한번 가 본적이 없어도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법률의 족쇄를 채워 놓아 미국 땅에서 공직 진출을 막아 놓고서도 "국민 정서"니 무어니 하면서 법 개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같은 동포로서 같은 동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동포로서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통해 있고 그동안 크게 발전한 조국의 일은 세계인

한국의 신문들 통해 한국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일들을 보며 놀라는 일들의 하나는, 커다란 법 체제 아래에서 자기 기관 위어나서 자라고 한국에 한번 가 본적이 없어도 소위 "선천적 복수국적"이라는 이론을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법률의 족쇄를 채워 놓아 미국 땅에서 공직 진출을 막아 놓고서도 "국민 정서"니 무어니 하면서 법 개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보면 과연 같은 동포로서 같은 동포가 잘 되기를 바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동포로서가 아니라 해도 이제는 전 세계가 다 통해 있고 그동안 크게 발전한 조국의 일은 세계인

보는가? 정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훨씬 발전했다고 보아야 할지.

사법적 정의를 실천하려면 복수의 수사기관들이 각자의 주어진 역할 안에서 수사를 전개할 수 있도록 밀어 주어야 한다.

보는가? 정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훨씬 발전했다고 보아야 할지.

보는가? 정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훨씬 발전했다고 보아야 할지.

보는가? 정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훨씬 발전했다고 보아야 할지.

보는가? 정말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법치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훨씬 발전했다고 보아야 할지.

예를 들어 새로 설치되는 "공직자 수사처"의 비리가 발생한다면 그 것은 누가 수사하는가? 군 수사기관의 군인에 대한 독점적 수사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수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군인 인권 유린같은 경우, 외부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어야 함은

예를 들어 새로 설치되는 "공직자 수사처"의 비리가 발생한다면 그 것은 누가 수사하는가? 군 수사기관의 군인에 대한 독점적 수사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수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군인 인권 유린같은 경우, 외부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어야 함은

예를 들어 새로 설치되는 "공직자 수사처"의 비리가 발생한다면 그 것은 누가 수사하는가? 군 수사기관의 군인에 대한 독점적 수사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수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군인 인권 유린같은 경우, 외부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어야 함은

예를 들어 새로 설치되는 "공직자 수사처"의 비리가 발생한다면 그 것은 누가 수사하는가? 군 수사기관의 군인에 대한 독점적 수사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수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군인 인권 유린같은 경우, 외부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어야 함은

예를 들어 새로 설치되는 "공직자 수사처"의 비리가 발생한다면 그 것은 누가 수사하는가? 군 수사기관의 군인에 대한 독점적 수사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수사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군인 인권 유린같은 경우, 외부에서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한편, 경찰이 범죄 수사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벌일 수 있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과거처럼 매 사건마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과거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경찰의 인권 유린이나 시민(국민)에 대한 권한 남용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한 상설조사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대화를 통해 진정한 민주 현대화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나라가 어려울 때 서로 힘들더라도 대화와 논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 일텐데, 원색적인 비난으로 일관하는 정당의 이른바 "대변인"들의 말투를 보면 그 바탕에 깔린 내용이 아무리 옳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정말 한국 정당의 대변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 직접 하시지, 소위 대변인들에 "약역"을 맡기는 것은 이조 당파 싸움의 연장선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국민과 유권자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면 자기의 소신대로 발언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정당에서 어떤 사안의 투표에 권유하거나 심지어는 압력을 줌 넣을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정치생명을 걸게 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중앙당 공천 제도를 폐지하고, 각 지역에서 지역의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정치인들의 성장을 도와 줄 수 있다. 정당마다 청년과 이른 바 "참신한 신인"들을 원한다고 하는데, 그들을 도와 주려면 이른바 "영입"하는 것 만으로는 결국 구태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들이 지역에서 자력으로 일어 날 수 있도록 선거와 투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민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동 · 창 · 회 · 비

온라인납부방법

우측의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정계훈
(문리 55)

/ 은퇴건강칼럼 /

장기간호의 경제학

구십구년을 팔팔뛰며 살다가 이삼사일만 누어 있은후 (9988-234) 하늘나라에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미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52%가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고 장기 간호를 받는다고 한다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9). 그 중 48%는 1년 이내, 19%는 1-2년, 20%는 2-5년, 그리고 13%는 5년 이상의 장기간호를 받는다고 한다. 평균적으로 남자들은 2.2년간 이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장수하기 때문에 3.7년간의 장기 간호가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노인들이 감당 해야할 장기간호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작년 (2019) 기준으로 양로원에서 독방에 거주하는 경우 그 비용이 연간 \$102,204이고 준 독방인 경우 \$90,156 이라고 한다(Genworth Financial, 2019). 그 비용이 금년에는 독방이 \$107,316이고 준 독방은 \$94,663이 웃돌 것이라 예측한다. 집에서 거주하며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이 \$52,620 될 것이라 추측한다. 가족이나 친지들이 무보수로 간병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전무한 것이 아니다. 측근 간병인들은 직장을 그만 두거나 육체적 심리적 부담 때문에 상당한 회생을 감수해야 한다.

Medicare에서 장기간호 비용을 지불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Medicare는 병원 퇴원후 100일 이내의 단기간호 의료 관련 비용만 지불할뿐 일상생활을 돕는 간병인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반면에 Medicaid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장기 간호 비용을 지불한다.

예를들어, 버지니아주에서 개인 소득이 연간 \$17,237 (가족당 \$35,536) 이하이고 자산이 \$2,000 (부부 \$4,000) 이하인 경우 Medicaid 도움이 가능하다. 그러나, Medicaid 혜택을 기대할수없는 시니어들은 다른 방법으로 장기간호기금을 준비해야 할것이다.

건강이 부진하고 치매나 뇌졸중과 같은 질

환에 노출되어있는 시니어들은 장기 간호 보험에 가입하는것이 현명하다.

장기간호보험협회 (2019)에 따르면, 55세의 건강한 남자의 연간 보험료가 \$2,050 (여자는 \$2,700)인데 이에따른 혜택은 일당 \$150

급증함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증가하거나 혜택지불액을 감소하고있다. 장기간호가 필요한 치매환자가 미국 내에 580만인데 그 숫자가 매년 14%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장기보험사의 수입성이 저하한다 (American Alzheimer's Association, 2019).



미 65세 이상 노인 52% 장기간호 필요
양로원 독방 연 10만달러 넘어 비용부담
알츠하이머 치매, 뇌졸중 장기간호 필수
예산은 물론 건강관리로 미래 대비해야

이다. 장기간호보험 계약기간이 대부분 3년이고 처음 90일은 제외된다. 따라서, 3년간 총 보험료는 \$6,150이고 받을 수있는 혜택은 \$150,750 (\$150 x 1005일) 이다. 지불한 보험료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 혜택은 3년간 필요한 장기간호비용의 1/3에 불과하다.

장기보험회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료와 혜택지불제도가 비영리적이란 판단된다. 문제는 장기간호가 필요한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여 보험혜택 지불 부담이

위와 같은 이유로 최근에는 전통적인 장기간호 보험가입자와 판매하는 보험회사 수가 급감하는 반면 생명보험과 장기간호보험을 합류하는 경향이 1:4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보험에 가입하려면 가입당시 상당금액 (예를 들어 \$100,000)을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5-10년간 분할지불을 해야한다. 이런 보험의 장점은 장기간호가 필요 없을 경우 저축된 자금을 유산으로 남길수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단기간호보험, 정부가

주관하는 의료비용 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s) 와 개인저축등으로 장기간호 비용을 준비 할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평상시 건강을 유지하여 장기간호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장기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장기간 간호가 필요한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졸중이다. 흥미로운것은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심장 질환의 위험요소 (고혈압, 콜레스테롤, 식료품, 당뇨, 생활 양식) 등이 혈관성치매는 물론 알츠하이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NIH, 2017; Harvard Medical School, 2019). 뇌졸중은 뇌로 연결되는 대동맥과 뇌혈관이 경색되어 혈액 운반 기능을 상실할때 발생하고, 알츠하이머 질환은 심장기능 장애로 뇌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실할때 뇌세포가 아사하거나 악성 아미로이드 프랙(Amyloid plaques)과 타오물치(Tau tangles) 가 형성되어 발생한다.

이 두가지 질환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지만 주기적인 운동, 식이요 개선과 건전하고 능동적인 생활 등으로 심장질환요소를 제거하면 예방하거나 지연할 수있다. 심장질환 위험 요소들이 주로 중년시절에 발생하여 노년에 뇌졸중과 치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니 일찍부터 심장 관리에 주력 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러한 심장질환을 제거하면 장기간호가 필요한 암이나 낙상 방지도 도움이 될것이다.

결론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졸중같은 장기간호가 필요한 질환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장기간호 비용은 물론 측근 간병인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막대하다. 재정적인 재난을 막기위하여 장기보험이나 개인적인 자산을 미리 저축 하는것이 중요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건강을 개인이 책임지고 관리 하는 것이다.

(이 글은 버지니아 주정부 노인국 자자이며 치매위원회에서 Commissioner로 4년간 봉사한 경험을 토대로 썼다).



오세경
(약대 61)

/ 삶과에세이 /

자화상

인생을 통하여 그들이 해 놓은 업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듯하다.

그러나 자기의 용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톨스토이는 자기의 용모에 대하여 무척 비판하였다고 한다. 베토벤도 여러번이나 그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에 실패하자 자기의 우락부락한 성격이나 투박한 용모에 대하여 고심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개인적인 불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상의 음악을 남겨주어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영감을 주었다.



미술가들도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사람이 많다. 반고흐는 비쩍 말라 광대뼈가 드러난 삼각형의 자기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귀를 자른 후의 모습도 화폭에 실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용납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미모와 온유한 음성, 그리고도 자상한 인격을 모두 겸비한 인물도 있었다. 영국이 나온 가장 훌륭한 외과의사 애슐리 쿠퍼가 그런 인물이었다. 그는 마취와 무균술이 없던 19세기초에 영국의 국왕 조지 4세의 뇌종양을 성공적으로 수술해 내었다. 뿐만 아니라 피가 분수처럼 솟아 오르는 대동맥도 잘 꿰매내 훌륭한 의사였다. 그의 출중한 외모, 부드러운 음성, 그리고 특출한 외과 수술 등으로 그가 당시에 도착할때면 모든 학생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곤 하였다. 그는 그 당시 21,000 파운드, (적어도 오늘날의 2천1백만불) 벌기도 하였다. 그는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나의 노력과 희생이었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나는 나는 이러한 천질을 타고났기 때문이라" 고 하였다. 목사의 아름다운 겸손한 태도였다.

사실 그의 말이 맞다. 우리는 우리의 생김

새나 특기 또는 성격까지도 우리 마음대로 지어낼수 없다. 우리는 단지 인생이란 여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잠재해 있는 특기를 발현시키고 인격을 연마하며 나와 내가 속한 사회나 국가에 이바지 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러나 남자를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을 그의 얼굴 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독일의 히틀러는 언뜻 보기에 상당히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과 정신

료해서 날개 해 줄거야" 하던 동생에게 내가 하는일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 것인가를 통감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내가 도착하기 전에는 동생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워 하더니 내가 온 후에는 편안히 휴식한다는 간호원의 말을 들을때 내가 조금이나마 동생에게 위로가 되어 준것이 천만 다행이라 생각되었다. 동생은 강도 높은 화학요법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으면서 물핀에 마취되어 하루에 23시간을 자고 있었다. 그러다가 하루에 한시간도 못되는 짧은 시간을 깨었을때, 내가 그를 지키는 것을 보고는 편안히 다시 잠들곤 하였다. 내가 그의 최후를 잘 마감해 주리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는 것을 볼때 그의 생애 비친 내 인간의 가치를 새삼 깨닫게 해 주었다.

마찬가지로, 늙고 병든 남편을 끝까지 간호하여 편안하게 되었을때, 그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이고 당신이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으며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생활을 당신과 함께 누렸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한때는 터흐스 치과 대학의 학장서리를 지냈고 하버드 치과 대학에 와서 구강병리학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하버드 치과 대학이 학교로서의 인가를 받게 해 준,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구강 병리학자였다. 그러나 그가 늙어감에 따라 그의 제자나 동료에게 배반받고 또는 이용 당했으며 심지어는 자기의 자손들에게도 잊혀버린 존재가 되어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과연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가 우리 얼굴위에 가격표처럼 쓰여있는가? 물론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남의 인생에 비친 나의 모습을 통하여 측정된다고 말하고 싶다. 비록 못생겼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계명을 지키고 우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때 우리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주와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 나도 77세의 인생을 뒤돌아 보면, 비록 미운 오리새끼가 백조로 변신한 것은 아니라도 성숙하게 자란 청동소리는 되었다고 자위한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내 인생에 평화와 만족감을 가질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조물주의 은혜에 감사한다" 는 어느 흑인 노예의 기도를 재삼 새겨본다.



플로리다 동창회 송년회... 최희덕 차기회장 추대

지난 20일 West Palm Beach 지역에서 동문 14, 준회원 7, 총 21명이 모여서 친교와 함께 연례모임을 가졌다. 회의는 직전회장 정지영(법 76)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희덕(사대 68)동문이 4대째(초대 유기향-법 65, 2대 조동건-공 69) 차기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동건 전회장의 광고로 그동안 추진중이던 뉴욕지역의 플로리다방문 윤곽을 알렸다. <글: 최희덕(사대 68)>

워싱턴 농대 동문 새해 첫 모임

훈훈한 온기가득한 선후배와의 만남

서울대 워싱턴 지역(SNUAA-DC)의 농대 동문 모임이 지난 1월 4일 (토) 한정민(농가정 87) 동문 집에서 열렸다. 바쁜 연말을 보내고 조금은 한가해진 새해 첫 토요일, 양손에는 Potluck 음식을 2-3개씩 들고, 마음에는 반가움을 한아름 안고 모인 12명의 동문들과 가족들이 다 모이니 총19명. 오랜만에 만나서 나누는 맛있는 수다와 반가운 마음으로 거실이 훈훈함과 정겨움

으로 가득 채워졌다. 몇 년 동안 농대의 큰언니/큰누나 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주고 계신 정원자 (농가정 62) 농대 동창회장님과 자상한 미소의 Mr. Bishop. 매주 진행되는 방사선 치료 중에 참석해주신 안선미 동문 (농가정 67) 과 멀리 한국에서 병마와 싸우는 친구(안선미)를 응원하러 방문한 농가정과 친구분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격정하며 기도하던 선



후배들에게 큰 감동과 안도의 마음을 선물해 주셨다.

김선희 (원예 78) 동문 부부는 원두커피를 직접 갈아서 마실 수 있게 drip 커피 장비를 한보따리 챙겨 오셔서 한 명씩 정성을 담아 맛있고 품격 있는 커피를 만들어 주었다. 3년만에 얼굴을 내민 강정구 (원예 90) 동문이 CEO로 있는 NeuroBo 제약회사가 올해 Nasdaq에 상장(NRBO)했다는 기특한 소식과 강동문이같이 운영하는 JKosmmune (www.kosmeticimmunity.com)에서 개발한 면역성 증진 로션/세럼/클린싱을 몇 상자 가지고 와서 모든 선후배들에게 선물하며 사용 후 홍보도 부탁하였다.

*2차 동문인사화비를 납부하셨습니다.

포토맥 강을 건너서 농대모임에 처음 참석한 김선태(식공 92) 배희경 (식공 94) 부부, 늘 모임마다 한결음에 달려와 굿은 일을 마다 않는 손문일 (농생물 04) 김태이(농경제 대학원09) 동문 부부와 딸 단아와 아들 지은이, 지역 동창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시는 문향식(농화학 81) 동문 부부와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품은 이우진(농화학 86) 동문 등 언제 만나도 마음을 따뜻하게 지퍼주는 선후배들이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토요일, 집을 가득 메운 정겹던 수다와 따뜻한 나눔과 웃음들. 그 때는 집안을 가득 채웠던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가 경자년 내내 우리 삶의 구석 구석을 밝히고 달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

<기사제공 - 한정민, 농87>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영재 동문

김영재(약대 46)동문께서 1월2일 93세로 선종하셨다. 김 동문은 1926년생으로 1946년도 약대 입학, 1953년도 교통고등학교에서 화학선생을 하며 약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55년도 숙명여대 약대 교수로 15년 근속, 1970년도 동덕여대 약대 교수로 재직, 은퇴 후 1983년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고) 박창진 동문

박창진(문리대 47) 동문께서 1월 4일 소천하셨다. 박 동문은 1947년 문리대 입학 52년에 심리학 학사, 56년에 석사를 받고 독일에 유학 1965년에 언어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및 스위스에서 연구활동을 한 후 1978년에 미주로 이주, 시카고 지역에서 거주했다



종신이사 추대



이용락

(공대 48 6대 미주동창회장)

이용락 동문은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후, 대한조선공사에서의 Engineer를 거쳐, 부산대 조교수 재직중에 미국국무성 Fulbright 장학금으로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에 수학과 1969년에 Ph.D. in Mechanical Engineering 학위를 획득, 시카고 근교의 Borg-Warner Research Center에서 17년간 열공학 분야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1986년 연구소에서 조기 은퇴하고, Heat Transfer Research & Development, Ltd. (HTRD)라는 사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장과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장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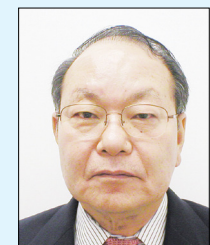
*2차 동문인사화비를 납부하셨습니다.



김보연

(간호 63)

김보연 동문은 이화여자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간호대 (당시 의과대학 간호학과) 졸업했다. 남편 심화섭 동문은 서울대 약대 졸업 후 University of Oklahoma 의대를 졸업,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다.



심상구

(상대 67)

심상구 동문은 1967년 서울대 상대를 졸업한 후 70년에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MBA 학위를 취득했으며 75년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Illinois State Government에서 auditor, Chief Accountantm Dept. of Mental Health, Chief - Bureau of Financial Services, Chief - Bureau of General Accounting, Dept. of Human Sevcies 등을 역임, 25년간 일리노이 주 정부에서 활동을 한 후 현재 Shim & Company, CPA의 대표이자 Metro City Bank, Atlanta의 디렉터로 재직중이다.

11주년 첫 강의 ‘지식층의 정치’ 세미나

워싱턴주 시니어클럽 SNU 포럼, 장대홍 박사 초청 강의

2020년 1월은 워싱턴주 서울대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의 SNU Forum이 탄생한지 11주년이다. 11주년 첫 세미나는 1월 11일 (토) Newcastle Library에서 열렸다. 영문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Wharton School에서 Financial Economics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한림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장을 역임한 후,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는 장대홍 박사가 “지식층의 정치성향: 보수와 진보의 균형의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등 정치 및 이념성향을 깊이 있게 다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장 박사는 이날 포럼에서 자신이 ‘보수주의자’라는 것을 전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념적인 확신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논란도 많고 부딪치기 쉬워 균형잡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박사는 이념의 문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지식층인데, 그 지식층은 이념적으로 상대적으로 좌파경향(진보)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미국 등을 중심으로 보면 지난 25년 사이 미디어, 연예계, 학계 등이 좌파경향이 가장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장 박사는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식층이 주도해 건국을 했으며 건

국 초기에는 지식층이 보수적인 경향이 많았다”면서 이후 미국에서 하버드대가 ‘보수주의의 온상’이 됐고, 예일대는 ‘좌파의 아성’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국 초기 지식층이 보수적이었다가 1960년대 월남전 반대, 반전 운동 등에서 나서면서 좌파경향이 심화했다”며 “학문적으로 보면 인류학이나 사회학 전공자들이 좌파경향이 많고, 경제학 전공자들이 가장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 박사는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유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자유의 크기에 따라 이념적 성향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자유는 정치적자유와 경제적 자유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체제가 전체주의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강조한 것이 무정부주의이다. 경제적 자유보다 정치적 자유를 강조한 것이 일명 진보라 할 수 있는 리버럴(Liberal)이고, 정치적 자유보다는 경제적 자유를 강조한 것이 보수주의라고 장 박사는 설명했다. 장 박사는 “현재 한국 정부는 좌파정권이 확실하다”면서 “평등주의가 과거에는 경제적인 면에 집중했는데, 현재는 모든 분야에 들어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훈(오른쪽)회장과 장대홍 박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화보



신응남(가운데)미주동창회 회장과 남가주 동창회 상임이사들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



취임사를 하고 있는 민일기 신임회장



2020년 새 임원진

<1면서 계속> 민 회장은 “우리 동창회가 바람직한 동창회로 자리 잡고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륜이 많은 선배님들의 지혜와 참여, 성원, 젊은 동문들의 열정과 패기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선후배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힘을 쓸 것을 다짐했다. 취임사 후 단과대학 회장 소개와 2020년 신임회장단 발표 및 인준이 진행되었다. 2020년 수석부회장(2021년 총동창회 회장)인 최용준 동문의 인사와 흥성선 신임 총무국장의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강연과 연주가 이어진 후 경품 추첨에서

특등상인 버뮤다 크루즈 티켓(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 제공)은 백혜란 동문이 당첨(이민기 동문 구입) 되어 경매 수익금을 발전기금에 기부하였다. 1등상 한국 왕복 비행기표 3장은 한귀희 전 회장, 민일기 신임회장, 최용준 신임 수석부회장이 제공했다. 서치원 상임이사가 당첨(백

옥자 구입) 되어 경매 수익금을 총동창회에 기증하였다. 또한 영영은, 지인수 동문이 당첨되었다. 2등상 50인치 TV는 임향균 동문이 행운을 안았다. 그 외 상임이사와 단과대 회장들이 많은 상품을 기증했다.

<기사: 홍선례 문화극장>

동창회장 동정



김관식 종신이사와의 만남

동창회 발전 방향 의견 교환

지난 1월 29일 미네소타 동창회의 대부 김관식(공대 61) 미주동창회 종신이사가 최근 발간한 회고록(태양을 꿈꾸는 사람-미네소타 김관식) 북 사인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했다. 김관식 동문은 미네소타에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리딩 기업인, EVS 사의 대표로, 지난 40 여년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운영해 오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뉴욕 지역 방문길에, 29일 저녁 뉴저지 가연 식당에서 미주 동창회 신응남 회장과 만나 미주 동창회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광고등 인턴십 제공 방법으로 미주 동창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원자력계 노벨상 '로렌스 상' 받은 장운일 동문

<시카고 동창회장>

KAIST '원자력' 특별강연



원자력계의 노벨 상으로 불리는 '로렌스 상' 수상자인 시카고 동창회 회장 장운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21일 장 교수는 KAIST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세계적으로 '원자력 르네상스'가 왔으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와 반대된다"며 "

지금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한국 원자력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을 '대안 없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물리적 공간의 제한 등 한계 때문에 화석 연료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원자력은 인간 두뇌로 개발해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무한한 에너지를 창출하는 유일한 에너지"라며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20개국에서 100기의 원전을 새로 건설하고 30여개 나라가 처음으로 원자력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중국 등 후발 주자를 따돌리기 위해

서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호소했다. 장 교수는 "스마트폰, 자동차는 매년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만, 원자로는 세대교체에 50년이 걸린다"며 "21세기 중후반을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차세대 원자력의 조건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기술 확보, 우라늄 이용률 향상, 안정성 보장,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에서의 경쟁성 확립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그는 "이 네 조건을 갖춘 차세대 원자로는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가 개발한 IFR(Integral Fast Reactor)과 일체형 고속로"이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독자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 인도, 중국이 미래를 내다보며 고속로 기술 상용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 기회를 놓치면 머지않아 따라잡힐 수도 있다"며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과감한 투자를 한다면 세계 원자력 선도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운일 교수가 21일 KAIST 기계공학동에서 '한국 원자력의 백년대계'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탱고 스텝의 낭만에 '흠뻑'

시카고 댄스 동아리

시카고 댄스 동아리 open house를 12/18(수) 7시 문화회관에서 춤과 포도주 함께 간식을 즐기며 성황리에 끝났다.

새로운 분들을 위해 황찬주 동문 부부 강사님의 스윙 스텝지도, 멋진 탱고의 시범도 있었다.

황찬주동문, 신택수동문, 이태호동문 부부가 음악, wine 과 간식을 준비하여 주었다.



남가주 서예·영화감상반 친목모임 송년회

지난 12월 18일, PARKVIEW Gallery(작가의 집 Art Hall)에서는 서예반, Cine Club(영화 감상반), 친목모임 동호회 회원들의 송년회가 열렸다. 흥선례(음대 70) 사회로 1부 첫 순서는 김동석(음대 64) 동문의 민요연곡 연주였다. 아리랑, 노들강변 등의 민요를 가야금 선율에 따라 다같이 불렀다. 이어 김자성(의대 79) 동문의 기타반주로 싱어유. 김자성 동문 부부가 듀엣으로 불렀다. 피아니스트 재갈소망(음대 02) 동문은 Chopin의 "이별의 노래"와 Christmas

Carol을 메들리로 연주하였다. 70여명의 동문들은 연주자와 함께 호흡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2월 생일을 맞아 신정연(미대 61), 최진석(법대 64), 홍선례 동문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와 케익 커팅이 있었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과 저녁식사 후, 2부에서는 노래자랑 시간. 한효동(공대 58), 김영대(미대 73), 박성길(농대 58), 민일기(약대 69), 홍성선(약대 72), 최진석(법대 64), 지인수(상대 59), 양창호(상대 54), 한귀희(미대 68) 등의 동문들이 서로 경쟁하

남가주 음대 동문회 총회·송년회

지난 12월 17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동창회에서는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용수산 한식당에서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개회 선언에 이어 김양희(음대 77)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 송란(음대 81) 총무의 사업보고에 이어 조정에(음대 75) 동문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신임회장에는 김미자(음대 81) 동문이 선임되었고, 다음과 같이 취임 인사를 했다. "2020년 한 해 음대 동문들의 힘을 모아 서 동문회를 이끌고자 합니다. 전임 회장님들의 뜻을 받들고 선후배 동문들을 위해 적극 봉사하여 동문회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영(수의대 63) 전 총동창회장은 음대 동문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했다. 김양희 회장은 김수영(음대 15) 등 7명의 동문들에게 2,000 달러를 전달하였다. 2부 순서에서는 김미자 동문 진행으로 게임과 경품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올 해는 입장이 모두에게 가면을 나누어 주었어. 그것은 2부 순서에 참가자 전원이 가면을 쓰고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이유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었지요."라고 사회자 김미자 동문이 설명했다. 53명의 동문들이 이날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듯 열창을 보여 주었다. 다음은 경품 추첨이 있었다. 대상에는 한효동 동문이, 1등

상은 신정연 동문, 2등상은 김영도 동문이 행운을 차지했다.



“한해의 위로와 희망의 새해 맞이”

남가주동창회 40여명 해맞이 행사... 떡국 먹으며 덕담 나눠

지난 1월 1일 경자년 새해 첫 날.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에서는 민일기(약대 69) 차기회장 주관으로 그리피스파크 정

상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새벽 5시 50분, 천문대 파킹장 북쪽 등산로 입구에 모여 6시부터 산을 오르기 시

작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을 때렸지만, 해맑은 산의 공기는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6시 40분경 정상에 도착. 6시 59분, 드디어 동근 해가 산등성이 위로 나타나자, 정상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감격의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였다. 붉은 해를 바라보며 새해의 염원을 빌었다. 7시 15분 하산 후, 한식당 '해마루'에서 약대에서 제공한 떡국을 나누었다. 4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은 경자년 한 해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인사와 덕담을 주고 받았고, 서로에게 새해의 복을 빌어 주었다.

남가주 공대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

수석부회장에 남종우 동문 선출

지난 12월 12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남가주동창회(회장: 조정시, 공대 60)에서는 PARKVIEW Gallery(작가의 집 Art Hall)에서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서지원(공대 69)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교가 제창에 이어 고 이종희(공대 53) 동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시 회장과 한귀희(미대 68) 총동창회장의 축하 말씀이 있었다. 이어 위종민(공대 64) 차기회장의 사업보고와 김경무(공대 69) 동문의 재무보고로 이어졌다. 위종민 차기회장은 조정시 현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또한 조정시 회장이 홍선례 필자에게 1년 동안 공대를 위해 수고했다는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2020년 수석부회장(2021년 회장)은 남종우(공대 62) 동문이 선출되었다. 소음악회에서 최유나(음대 11) 동문은 첼로 솔로로, Johann Sebastian Bach Cello Suite No.1 in G major Prelude와 Camille Saint-Saëns의 "The Swan"을 연주했다.

재갈소망(음대 02) 동문은 피아노 솔로로 쇼팽 작곡 "이별의 노래"를 연주하였다. 이어 단체사진 촬영과 저녁식사로 이어졌다. 홍선례 필자는 1년 동안 공대 행사에서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소개하였는데, 동문들은 지난간 1년을 회상하며 흐뭇한 표정들이었다. 2부 여흥은 서지원 상임이사의 재담과 노래 자랑으로 이어졌다. 특히 강효남(67) 동문의 열창에 함께 춤을 추어 흥을 돋구었다. 경품 추첨에서, 김병연(공대 68) 전 총동창회장이 제공한 삼성 50인치 TV는 남종우(전 기 62) 차차기회장이, 조정시 현 회장이 제공한 LG 49인치 TV는 강효남(섬유 67) 동문이, 노명호(공대 61) 전 총동창회장의 코스코 선물카드가 위종민씨가 행운을 안았다. 위종민 차기회장이 제공한 진공청소기는 김정빈(기계 66)씨가 당첨되었다. 끝으로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둘러 "친구여"를 불렀다. "Happy New Year!"를 서로에게 건넸다. <기사/사진: 홍선례 편집위원>

남가주 법대 동창회, 50여명 참석 성황

최진석 현회장 연임... 연주회 경품 추첨 등 행사

지난 12월 10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최진석, 법대 64)에서는 옥스포드 호텔에서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5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을 이루었다. 최진석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채규형(법대 69) 재무의 회계보고가 있었고, 최진석 회장은 이기준(법대 54, 전 총동창회장) 고문에게 공로패를 증정하였다. 2020년도 회장에는 최진석 현 회장이 연임되었다.

단체사진 촬영 후 점심식사로 이어졌고, 2019년 한 해 동안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로 감상(홍선례 음대 70)하였다. 또한 11월과 12월에 생일을 맞이한 동문들을 축하하는 순서가 있었고, 이날을 축하하는 연주가 다음과 같이 있었다. Violin 박예린(음대 10) 동문이 연주한 "Czardas"는 날렵하고 섬세한 연주로 박수를 많이 받았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Vittorio Monti(비토리오 몬티)가 작곡한 "Czardas"는 헝가리의 민속 무곡 "차르다

시(Csárdás)"를 바탕으로 1904년에 작곡한 작품이다. Cello 김민지(음대 09) 동문은 슈만의 "Adagio and Allegro"를 연주하였다. 2부 순서에서 최송규(법대 62) 동문의 사회로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이 있었다. 홍세봉(법대 67) 동문이 "My Way"를 열창했는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가수 Frank Sinatra에 못지 않은 가창력을 보여 주었다. 경품 추첨에서는 1등 김경필(법대 67) 동문, 2등 최송규(법대 62) 동문, 3등 Mrs.오문성(법대 56)씨가 행운을 차지했다. 최진석 회장은, "제가 위임되게도 내년 회장을 맡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여 동문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동문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 드립니다." 해마다 그러했듯이 올 해도 노래 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기사/사진: 홍선례 편집위원>





“서울 - LA 문화교류 기대”

유창종 유금와당 박물관 관장, 법대동문 강연회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역임 후 2003년 유금와당박물관 건립



유창종 (법대 64)

지난해 12월16일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 강연회(회장 최진석 법대 64)가 오후 12시 용수산에서 유금와당 박물관 유창종 관장을 모시고 많은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1978년 8월5일 충주 시 타평리에 위치한 국보 6호 중앙탑 밑에서 우연히 발견한 연화로 파편 6조각을 시작으로 41년째 와당 수집가인 유창종 관장은 와당(기와 끝 등근 모양)은 한국기와 지붕 위의 아름다움을 연구하다 보면 시대별 고구려, 백제,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낙랑 등 기와의 특성이 나타나 출토 유적지 및 다른 유물에 대한 시대 구분의 기준 자료와 여러 국가 간의 문화 교류 과정을 증명 하는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강연회를 통해 서로의 문화 교류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며, 오랫동안 LA를 방문하여 동문들을 만나니 예정된 강연 시간이 가는 줄모르게 열정으로 강연을 했다. 지금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돌며 와당을

수집하고 연구해 지난 2003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와당 박물관을 지었다. 와당수집에는 부인인 금기숙 홍익대학교 교수가 함께했는데, 박물관 이름도 유 변호사와 금 교수의 성을 따 '유금와당박물관(柳琴瓦當博物館)'이라 지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1가길 4) 유창종(柳昌宗) 유금와당 박물관 원장은 1964년 서울대 법과대학 입학 /미국 미시간대 법과대학 대학원을 1974년 서울중앙지검사 및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을 마약수사의 대부로도 불리며 역임했으며, 1979년 2월 그가 조직한 예성문화연구회 회원들과 함께 발견한 중원고구려비(中原高句麗碑)가 국보205호로 지정되기도 했고, 1996년에는 국보 274호였던 귀함별황자총통(龜鑑別黃字銃筒)이 가짜임을 밝혀내기도 했다. 2002년 한-중-일의 와전 1875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유창종 기증 2009년 5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현재 유금와당 박물관 관장 및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하고 동아시아 박물관을 돌며 특강도 하고있다. 얼굴 모습에서 이력을 안보아도 반듯한 법조계의 모습이 전해지며, 탐구와 수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와당 연구에도 적용이 되어 오늘날과 같은 수집에 심여를 기울여 만들어낸 인생작품이다. 2009년 《동아시아 와당문화》 2015년 《돌

아은 와전 이우치 컬렉션》 2016년 《와당으로 본 한국 고대사의 쟁점들》 그리고 지난 2019/10/30 '유금와당 박물관 (유창종 관장)을 남가주 법대 최진석(법대 64) 회장 부부가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 후 박물관을 방문하셨다. 두 동문은 지난해 서울대 홈커밍데이 행사 참여 후 "친구가 반갑다"로 박물관 정문에서 기다리시면서 반갑게 서로 안으며 악수하며 맞아주었다. 젊어서부터 취미로 수집된 와당은 세계에 알려는데 큰 기여를 한다. 와당(기와 끝의 등근 모양)은 가옥의 지붕을 덮는 건축부재로 목조에 기와를 얹었던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고대 건축물에서 발달하면서 점토를 구워 만든 것이다. 와당에 따라 다양한 와당 형태의 문양이 담겨 있어 미술사 연구에도 대상이 되고 있다. 유금와당 박물관은 2003년 3월 개관 했으며, 국내 유일의 기와 전문박물관으로 동아시아 기와5000여점, 중국 도용 2000여점, 그 외의 각 종 토기류를 소장하고 있다. 1910년대에서 부터 총 수집 역사가 100년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기와 수집이다. 역사와 철학, 예술과 인생에 관한 경험과 깨우침 등을 심화 시켜주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은 3가지의 목적을 이루려는 의지가 있는데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와당과 도용 박물관이 되는 것 둘째, 한국 문화의 특성



귀면와(도깨비얼굴기와), 고구려, 평양 청암리 출토.

과 우수성을 연구, 교육, 홍보하는 것 셋째,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유금와당박물관의 전개 사업은 와당도용 전시회 및 예술회원 작품 전시회 개최, 교육프로그램 운영 3.학술대회, 국내외 교류와 협력 활동,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유금예술제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2년 한중일의 와전 1875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 유창종 기증 2009년 5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현재 유금와당 박물관 관장 및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를 하고있다. 참 많은 수집 중에 와당을 수집하는 특이한 특성이 한국의 고유한 특성을 연구하며, 세대의 변천사에 기여하는 점에 찬사를 보낸다. 박물관 관람 후 남가주 법대 동창회 정인환 이사장(법대54)께서 기증해준 서예축자(朋友每思相聚樂塵埃難得有關時봉우대사상취락진애난독유한시.벗을 날마다 생각하니 서로가 모여 즐거워하며 티끌같은 어지러운 세상에 얻기 어려운 한가한 때가 있구나)를 전달했다. <기사/사진: 백옥자 편집위원>

서울대 미주동창회 2020 스페셜 이벤트

대한민국 3.1절 101주년을 맞아 미주동창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3.1절의 의미를 잘 알릴 수 있는 글을 모집, 게재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글의 내용 3.1절 관련 새로운 발견과 관련인물에 관한 사실을 알고계신분, 그날의 감동과 2020년 자랑스러운 역사와 고귀한 정신과 희망을 다음세대에 전해줄 동문들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의 양 500 단어 (글자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반 이내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십시오

원고마감 2020년 2월 20일(목)

*원고 보내실 분은 20일 전에 미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 미국시인 소개 /

William Heyen 윌리엄 헤옌

William Heyen lives in Brockport, NY. He is the author of 30 volumes of poetry, memoir, fiction, and essays. A former Senior Fulbright Lecturer in American literature in Germany, he has won Guggenheim, NEA, American Academy of Arts & Letters and other fellowships and prizes. His Shoah Train: Poems was a finalist for the National Book Award.

BLACKBIRD SPRING

| | |
|--|---|
| Mid-morning, walking ocean shoreline, I found a hundred blackbirds frozen in ice, only their heads protruding, black eyes open, gleaming, most of their sharp beaks still scissoring in mid-whistle. | I chipped one bird loose with a stone, held it in gloved hands under the rising sun until, until I realized, until I realized nothing I hadn't known. The tide retreated & would return. Within the austere territories these would have filled with belligerence & song, spring had begun. |
|--|---|

Feeding, they'd been caught
in sea-spray, must be-
all males, up north early,
scarlet epaulettes aflame
a few inches under.

CAPSULE

Then came the year when seagulls flocked into our ballparks.
Stadiums without domes postponed, then cancelled even all-star games.
At first, players could play around them, but then there were too many
to kick away or run through. We'll remember the photo of Arroyo come up from
sliding into second with blood & feathers on his face while, in front of the bag,
the ump has one gull by the neck, others underfoot. His call brought both
managers to the field & everybody laughed. Then came the year pro football
was shut down because of moths.
Then came the year NASCAR tried flamethrowers against the trillions of ants
that slicked all tracks, but it was no use, nothing worked.
Then the year when Time did not end, though we thought it would.

찌르레기의 봄

| | |
|--|--|
| 오전 나절, 해변을 걸으며, 얼음 속에 죽어 얼어붙은 수백 마리 찌르레기를 보았다. 머리만 볼 밖에 내놓은 채, 반짝이는 검은 눈은 뜬 채, 휘파람 내던 날카로운 부리는 별리던 순간에 얼어버린 채. | 장갑 낀 손 안에 감싸 쥐었다 떠오르는 태양 아래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들을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파도는 밀려갔고 다시 올 것이다. 멀고 먼 야생지에서였다면 새들은 더 호전적이고 노래도 더 많이 불렀을 텐데, 봄이었다. |
|--|--|

이른 봄 일찍 북으로 온 수컷들,
모이 먹다가 몰보라에
간헐 것 틀림없어—
새빨간 반점들 얼음 밑에서
불타고 있었다.
한 마리를 돌로 쪼아내어서

캡슐

그 후 갈매기들이 우리 야구장으로 떼 지어 몰려들던 해가 있었다.
지붕이 없는 야구장은 게임을 연기했다가 곧 올스타 게임마저 취소했다.
처음에 선수들은 새 주위에서 게임을 했으나, 차내며 해집고 달려들 허가에는
너무 많아져 버렸다. 2루 백업의 심판이 손으로는 새 목덜미를 잡고 있고,
그 발밑에는 여러 마리가 있는 가운데, 예로요선수가 도루한 후 얼굴이 피와
깃털로 범벅된 채 일어나던 사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요청으로 두 매니저가 경기장으로 불려왔고 사람들은 웃었다.
그 후 나방 때문에 프로 미식축구 경기가 중단된 해도 있었다.
그 후 경주로를 미끄럽게 한 수조 마리 개미떼에게 나스카가 불뿔을 기계로
들어던 해도 있었다. 그러나 소용없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 후 시간이
끝나리라 생각했으나 끝나지 않던 해가 있었다.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Most of all I fear one towering bookwright. He is seven bloodshot feet with a wingspan that cowls the postwar world. He is Achilles' rage. He is Cuchulain's warp spasm. He has brooded a shelf of monographs and sheaves of periodical publications. His penumbra shades a generation. He has composed the definitive poetry on the Holocaust, on Hiroshima, on the Gulf War, on Native American genocide, on the dying planet, on 9/11, and on Walt Whitman. . . . I'll call him The Poet."

—Philip Brady
Professor of English at Youngstown State University
Editor of Etruscan Press,
author of several well-received books of poetry and criticism

William Heyen, aside from being a giant in physical stature, he is also a Brobdignagian as a teacher, poet, and humanist. His poetry and other writing have reached out in support of so many worthy causes and concerns of Humanity—Native American, Holocaust, Nuclear, Environment—that he might be called the Gandhi of Modern Poets. It has been my singular honor to count him as a friend.

—Stanley H. Barkan.
American poet. Translator.
Editor/publisher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The Homer European Medal of Poetry and Art (2016)



이태상 (문리 55)

/ 에세이 /

눈물과 웃음, 미녀와 추녀

우리 잠시 영어로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 그리고 '웃는 하이에나(Laughing Hyenan)'라는 말의 뜻을 음미해보자,

땅거미 질 때 이집트 나일강가에 승냥이 비슷한 들개 하이에나와 악어가 만나 서로 인사(人事) 아닌 수사(獸事)말을 나누었다.

"요즘 어떻게습니까, 악어 씨?"

하이에나가 묻자 악어가 대답했다.

"좋지 아니하오이다. 때때로 고통과 슬픔에 복받쳐 내가 울기라도 하면 남들이 저건 악어가 거짓으로 흘리는 위선의 눈물일 뿐이라고 하니 내 기분이 여간 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그러자 하이에나가 말했다.

"그대는 그대의 고통과 슬픔을 말하지만 잠시 내 말도 좀 들어보시오.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경이로운 기적에 감탄, 기쁨에 넘쳐 온 자연과 함께 내가 소리 내어 큰 소리로 웃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저건 실컷 배부르게 먹이 많이 잡아먹고 좋아서 웃는 하이에나의 잔악한 웃음소리일 뿐이라고 한다오."

이것은 칼릴 지브란의 '방랑자(The Wanderer)' 나오는 우화 중에 하나인 '눈물과 웃음' 이야기다.

젊은 날 서울에서 잠시 영자 신문기자로 내가 직접 취재 보도한 사건이 있었다. 1966년 4월 27일자 코리아 타임스(The Korea Times)에 실린 짤막한 영문 기사를 우리말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악어의 눈물'이 술 취한 한 젊은이를 절창 속에 집어넣었다. 지난 일요일 인천시 승의동 255번지에 사는 27세의 안종일 씨가 서울 창경원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장난으로 동물원에 있는 악어에게 벽돌을 한 장 집어 던지려 하자 이 필리핀 태생으로 신장 6피트, 나이 70세의 악어 포로수스 씨는 그 전설적인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안 씨는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서울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고 즉심의 최만

항 판사는 대한민국 형법 366조 '정부재 산손과죄'를 적용,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안 씨는 벌금 1,000원을 물 돈이 없어 벌금 대신 닷새 동안 유치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안 씨가 집어던진 벽돌을 맞아 악어의 머리가 다쳤다고 경찰조서에 쓰여 있었으

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 대표적인 미식가(美食家)인 포로수스 씨는 토끼와 닭고기를 상식(常食)하는데 그가 한국에 온 후 지난8년 동안 먹어 온 늘 같은 메뉴에 식상(食傷)한 나머지 오래 비장해온 그의 비법(秘法)을 발동, 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 '악어



올리시스 S. 그랜트(미국의 18번째(1869년-1877년) 대통령이자 장군)를 묘사한 Bernhard Gillam의 그림.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은 위정자를 빗대어 말하는 통속어이다. 악어가 먹이를 씹으며 먹히는 동물의 죽음을 애도해 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에서 전래된 것으로, 패배한 정적 앞에서 흘리는 위선적 눈물을 가리킬 때 쓰인다.

한 사람의 '눈물'은 다른사람의 '웃음'

누군가의 불행에 '악어의 눈물', 오히려 양심적

내 행복 먼저 만끽하는 '하이에나의 웃음'은 솔직

나 창경원 동물원 직원 말로는 안 씨가 벽돌을 집어던지려는 순간 경비원의 제지로 실제로 악어를 해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편 안 씨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서울 창경원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술에 취해 장난으로 동물원에 있는 악어에게 벽돌을 한 장 집어 던지려 하자 이 필리핀 태생으로 신장 6피트, 나이 70세의 악어 포로수스 씨는 그 전설적인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안 씨는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서울 즉결 심판에 회부되었고 즉심의 최만

의 눈물'을 흘려 메뉴를 바꿔보려 했음에 틀림없다.

이상과 같은 기사를 쓰기 위한 취재과정에서 안 씨의 무죄가 밝혀져 당시 동대문 경찰서장의 사과를 받고 즉심의 오심 판결이 무효화 되어 안 씨는 즉시 석방돼 귀가했다.

극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한 사람의 웃음은 때론 다른 사람의 눈물이고, 또 한 사람의 눈물은 또 다른 사람의 웃음이다. 비근한 예로 우산 장사와 양산 장사가 그렇고, 의사와 환자, 유가족과 장의사의 경우

가 그렇지 않은가. 부처님 앞에 공양드리거나 어떤 귀신한테 굿이라도 해서 대학입시, 취직시험, 사법고시, 등 어떤 시험에 운 좋게 합격한 자식 부모의 웃음꽃은 낙방거자(落榜擧子) 부모의 울상 아닌가. 부처님이나 예수 또는 어떤 귀신이 사람에게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정할 주는지, 또 참으로 신(神)이 정말 존재하는지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확실히 알 수 없겠지만, 설령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 해도 신이 신다운 신격(神格)의 소유자라면 약육강식의 자연계와 인간사회에서 무조건 강자의 편을 들어주거나 어떤 특정 개개인의 이기적인 기도나 기구를 편파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신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다 내가 잘나고 예뻐서 하느님이 내게만 내리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만큼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미안지심(未安之心)에서 악어같이 거짓으로라도 눈물 좀 흘리는 편이 좀 더 양심(良心)적이고 양심(良心)적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 같이 울고 가슴 아파하기 전에 당장 잠시 나타난 그 야말로 뜬구름 같이 덧없는 내 행복부터 먼저 만끽하면서 하이에나처럼 웃어보는 편이 좀 더 인간적이고 솔직하며 정직하지 않을까.

어느 날 미녀(美女)와 추녀(醜女)가 바닷가에서 만나 우리 같이 바다에 들어가 놀자 하고, 그들은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 한 동안 헤엄치며 놀았다. 그러다 추녀가 먼저 물 밖으로 나와 미녀가 벗어 놓은 옷을 입고 가버렸다.

그런 후에 바다에서 나온 미녀는 제 옷이 안 보이자 하는 수 없이 추녀가 벗어놓은 옷을 입고 가버렸다. 그 후로 이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녀를 추녀로, 추녀를 미녀로 잘못 보게 되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미녀와 추녀를 아는 이들이 있어 어떤 옷을 입고 있던 미녀는 미녀로 추녀는 추녀로 바로 알아보더라.

이렇게 칼릴 지브란의 '방랑자(The Wanderer)'에 나오는 우화(寓話) '옷(Garments)'에서 말하듯이 세상에는 악어탈을 쓴 심약(心弱)한 토끼나 늑대탈을 쓴 천진난만한 병아리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정동구(공대 57)

/ 독후감(하) /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를 읽고

<지난회에 이어서> 재미 있게 해설되어 연결되는 철학적인 측면을 빼고라도 인류지성사에 획기적 도약을 가능케 했던 자연과학분야의 여러 이론들(Newton의 고전 역학, Einstein의 상대성이론, Boltzmann의 통계 열역학, Schrödinger의 양자 역학 등)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함으로써 자연과학에 취미가 있거나 예전에 관련이 있었던 분들에게 좋은 복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한다. 600여 쪽의 큰 저서를 10 장으로 나누어서 옛날 중국의 광양선사가 그랬다는 진리를 찾아나서는 한 구도자의 모습을 소를 찾는 한 목우자의 힘든 역경과 비유해서 작성하였다는 "심우십도" 를 소재로 지성사의 발전 과정을 10 단계로 나누어서 강의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각 장마다 "역사지평" 을 통하여 그 시대의 배경과 또 관계 인물들의 관련 사건들을 재



관람 <심우도>의 첫 그림에는 '심우'라는 제호가 붙어있다. 한 구도자가 손에 뱀줄을 잡고 드넓은 들뜰으로 소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다. 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이를 잡아 오겠다는 결의가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소의 모습은 물론 흔적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소는 진리를 상징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림에서 진리 곧 참이치를 추구하겠다고 나선 한 구도자를 본다. 그는 참이치를 알아볼 어떤 결의와 식견을 가지고 있을까? -책 원문 발췌

미있게 구사하고 나서 "내용 정리" 에서 그 장의 핵심원리를 저자 특유의 교수방법으로 때로는 방정식과 도식을 써서 명료하면서도 쉽게 도출하였다. 마지막 "해설과 성찰" 에서는 앞에서 도출한 상태 변화의 핵심 원리의 완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많은 예를 들어 재미 있게 더 설명하였다. 저서의 제 1 장에서는 조선조의 유학자 여헌 장헌광이 집필하였다는 "우주요괄첩"과 '우주설' 특히 그 안에 있는 "답동문" 을 예로 들어 동아시아에서도 근대 학문 탐구의 맹아가 싹트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방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Einstein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휘어지는 4차원 공간에서 그 의미를 설명 하고 있다.

시간을 위치와 동등한 4 차원 시공간의 한 변수로 보는 앞의 틀에 근거한 상대성 이론은 종래의 Newton 운동법칙이나 또 Maxwell의 전자기학 이론에서의 부적절 한 면을 보완해 주는 정교하고 포괄적인 이론으로 지적 되고 있다. 제 4장에는 양자역학의 핵심을 설명하고 Schrodinger Equation을 도출 설명하고 있다. 상태함수를 이용하여 확률적

구도자의 모습을 목우자에 비유, 10단계로 기술

인물, 사건을 통해 특유의 교수법으로 핵심 설명

조선유학자 장헌광 '우주설', 뉴턴의 법칙과 연결

'생명·온전한 앞의 정의', 과학과 철학적으로 설명

문헌들에 나오는 물음 "대지(지구)는 허공에 떠 있으면서도 왜 떨어지지 않는가" 라는 물음을 Newton의 물음 즉 "사과는 왜 떨어지는가"라는 물음과 대비하여 그 물음들의 근거가 되는 바탕 관념(공간의 차원)과 연결하여 논의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학문 탐구의 방법론과 열정은 서구 못지 않게 있었으나 자연 현상을 수학과 물리학의 법칙 형태로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고전역학의 사상적 배경을 데카르트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Newton의 제 2 법칙과 중력 법칙의 핵심을 풀어 설명하였다. 제 3장에서 논의한 상대성 이론에 있어서는 Einstein의 생애와 그의 야생적 학문추구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고 있다. 기술기가 다른 두 사다리에서 4차원 시공간을 적용 하여 특수상대성 이론을 저자 특유의

인 추적으로 자연의 현상을 기술하는 양자역학의 태두로 원자 또는 더 작은 소립자들의 성질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이르렀다.

제 5 장에서는 통계열역학을 다루고 있으며 Boltzmann의 Entropy 공식, S = k log W,의 핵심인 거시상태와 미시상태를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열역학 제 2 법칙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가 최근에 학술지에 발표한 빛이 지닌 자유 Energy의 가동률에 대한 핵심 원리를 5장 부록에서 도출하고 그 결과에 후에 광합성 논의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 6 장 우주와 물질에서는 Einstein의 우주 방정식 (Field Equation) 을 설명하고 4차원 tensor Equation 으로 된 방정식의 해는 부록에서 자세하게 도출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우주의 나이, 팽창, 온도의 강



"장회익의 자연철학 강의" 철학을 읽은 과학에게, 과학을 읽은 철학에게

하로 인한 물질의 출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 7 장 생명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열역학 제 2 법칙과 Entropy에 근거한 다른 과학자들의 제안을 설명하고, 저자가 창안한 온생명(Global Life)의 핵심적 내용을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태양 - 지구계의 자유 Energy의 흐름에 기인하여 지구표면에 물질이 요동하면서 자체촉매적 국소질서가 태동하게 되었고, 지난 40 억년의 세월을 거쳐 고차적인 제2 국소 질서로 진화 변성하여 오늘의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는 게 핵심 논지이다. 이 Global Life 사상은 저자의 단행본 책자로도 출간된바 있으며, 그 핵심 원리는 생명철학에 관련된 국제회의에서도 발표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제 8 장 주체와 객체에서는 스피노자와 데카르트 의 서구적 배경사상을 논의하였고, 저자는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객체)와 생각고 인식하는 우리의 정신(주체)는 두 다른 실체가 아니고 하나의 실체가 가진 두 양상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다.

제 9 장에서는 '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자연의 변화 가운데 그 일부로서 인간이 출현했으나, 그는 다시 사고의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자기를 벗어난 자연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주가 곧 그 자신을 이해하는 경지가 가능함을 보였다. 마지막 제 10 장에서 온전한 앞의 모형을 주돈이의 '태극도설'과 비교하며 논술하고 있으며, 결론으로 온전한 앞의 이상적 모습은 온생명 사상에서 기술한 온생명적 자기와 우주의 통합적인 이해라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저자 장회익 동문

서울대 문리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루이지애나주립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고체물리학 연구(논문 <GsB의 에너지밴드 구조>)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텍사스대학교 연구원 루이지애나대학교 방문교수를 거쳐 30여 년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같은 대학 대학원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겸임교수로 참여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초빙교수로서 경희대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과학과 메타과학』, 『삶과 온생명』, 『온생명과 환경, 공동체적 삶』, 『물질, 생명, 인간』, 『생명을 어떻게 이해할까?』, 『공부 이야기』 등이 있다.



/ 시와 생각 /

석류가 수류탄이 되어버린 슬픈 사연

오아시스에서의 만찬은
항상 아름다워라
백옥의 별들이 반짝거리는
한 알의 석류와
빨갭게 태양이 이글거리는 수박과
노오란 달덩이 같은 라과
그리고

몇 조각 양고기
비록 가난하지만

배고픈 이교도를 위해 차려준
한밤의 식탁은

정녕 우주로 돌아가는
제식의 하나일지니

내 한 알의 석류를 먹어 별이 되고
한 덩이 수박을 먹어 태양이 되고

한 조각의 라을 먹어 달이 되리라
그리고 남은 몇 점의 양고기는

희생의 제물,
당신께 바치는 내 마음의 아픔이오니

알라여,
생을 지기 위해 죄를 짓는

또 다른 한 생이 되지 않도록
죽으면 내 영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기를...

오세영 시인의 "쿠처에서"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백옥의 별들이 반짝거리는" 석류 한 알을 먹고, 시인은 별이 됩니다. 시인이 "항상 아름다운" 만찬을 대접받는 곳은 쿠차, 중국에서 서역으로 가는 실크로드에 있던 불교 왕국, 이제는 중국 변방 위구르인들이 사는 곳. 부처님 대신 알라 신의 가호를 비는 동네. 석류의 고향 근처 석류는 오늘의 이란 지방 원산입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이란을 안석(安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석류(石榴)라는 이름의 과일이 중국으로 오고, 우리나라까지 왔네요. 석류는 서양으로도 전파됩니다. 라틴어로 pomogranate "씨가 많은 사과(과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고대 프랑스어로 pomegranate, 오늘의 영어 pomegranate는 프랑스어화한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죠. 정착 프랑스에서는 중세부터 앞의 말은 때때



김지영 (사대 69)

버리고 grenade로, 앞의 말 pomme는 아직도 프랑스어로 사과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grenade가 현대 영어에서는 ... 로스앤젤레스의 석류 "small explosive shell" 즉 수류탄이 되었다네요. 15세기 프랑스 군인이 이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걸 모양이 비슷하기도 하고, 수류탄 속의 화약 그리고 파편들이 석류 알갱이를 연상 시키기도 하고, 수류탄, 한자로는 "手榴彈", 류자가 석류 류자입니다. 원가 좀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수류탄을 던지는 사람은 "grenadier" 알함브라 궁전이 있는 스페인의 Granada, 여기서 이름을 딴 남가주 소도시 Granada, 카리브 해의 작은 나라 Granada, 모두 석류 아니면 수류탄과 연인이 있는 도시. Grenade, 수류탄은 grain, 알과과도 같은 집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라틴어 grenade는 granum에서 나온 단어, granum은 small seed라는 뜻, 여기서 나온 말이 grain. 미국 식당에 가면 corned beef 라는 게 있지요. 우선 생각이 corn, 옥수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지요. 옥수수만 먹인 소에서 나온 고기? 아니지요. 여기서 corn은 grain과 같은 말입니다. 인도-유럽계의 여러 언어가 분화하기 전에 있던 같은 조어(祖語)에서 나왔습니다. Corns of salt, 소금알에 담가서 저장된 소고기인 corned beef입니다. 오늘날 corn이 옥수수의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은 옥수수 알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지요. 옥수수는 원래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키우던 maize를 개량한 것입니다. 석류, 수류탄, 알과, 옥수수... 한이 없는 말의 연인 고리지요.

/ 숨겨진 역사이야기(하) /

조선노비, 왜군되어 조선병사에 대한

<지난회에 이어서>

주인이 노비에게 가혹한 행위나 부당한 요구를 해도 주인을 고발할 권리가 없었다. 웬만한 양반은 300여명의 노비를 거느렸다. 20-30명의 노비는 주인집 근처에 살면서 양반 집안 일을 해주었고 나머지는 각지에 있는 양반집 농사를 지었다. 상속할 때는 재산 목록 제1호가 노비였다. 물론 궁중이나 관가에서 일하는 관비도 있었다.

세종대왕때 굳어진 사대주의와 신분제도는 국방을 대국에 의지하게 했고 다수의 백성보다는 소수의 양반을 위한 국가로 점점타락하게 했다. 외국의 침략이 없었던 건국후 200년동안은 평화스러웠던 것처럼 보이나, 그안에서 양반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노비들의 생활은 비참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와 양반에대한 분노가 분출되었던 것은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었다.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국민도 국가를 버린다는 역사적 증거였다.

평소에 훈련도 하지않고 있던 각 성의 장수들은 적군이 쳐들어 오고 있다는 보고만듣고 출병량을 쳤다. 장수들은 대부분이 무관이 아니라 문관이었다. 갑자기 소집된 병사들은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적이 없는 농사꾼들이었다. 그들은 초총소리만 들어도 도망쳤다.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친것도 혹시 퇴로가 없으면 싸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실상 전쟁은 의병과 명군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순신장군이 지휘했던 해군은 전쟁의 승패에 막중한 영향을 미쳤다.

반성의 목소리는 유성룡의 정비록 뿐만이 아니었다. 한국사람이면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실학이 태동한 것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었다. 유교와 성리학만으로는 나라가 망한다고 했다. 인륜 도덕만 가르치지 말고 국민생활에 보탬이 되고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문을 배워서 실천에 옮기자고 주장했다. 이것들을 아울러서 실학이라고 한다. 신분제도 특히 노비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소작농을 없애고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사를 직접지어야 한다고 했다. 양반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주지말고 국민교육을 주장했다.



온기철 (의대 65)

다. 과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능력본위의 인재등용을 제안 했다. 그러나 신선한 제안들은 제야에 묻혀 있던 학자들의 공명불에 불과 했고 위정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대주의와 신분제도를 유지하면서 양반의 이익을 보호했다. 결국 조선은 망했다. 500년동안 저지른 실수의 댓가는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른나라를 자국에 득이 없는 데 쓸데없이 돌지 않는다. 임진왜란때 명이 조선을 도운 것은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면 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명의 은공을 잊지 못해서 명이 망했는데도 명을 섬겼다. 명은 중화였고 조선은 소중화이기 때문에 조선이 명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청에게 걸로는 조공을 바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속으로는 오랑캐라고 무시했다. 조선의 유일한 무역 창구였던 청에게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 조선은 그야말로 캄캄한 암흑속에서 은둔의 나라가 되어 갔다.

남한은 미국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아무런 이득없이 남한을 도와 준것은 결코아니다. 태평양 방어의 교두보인 일본의 안보에 남한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남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어지면 미국은 남한의 안보에 크게 관심을 기울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한도 미국이 남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국가의 안보를 외국에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부국강병하여 자주국방을 해야만 한 나라의 안보가 튼튼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부국은 되었으나 자주국을 소유한 자가 농사를 직접지어야 한다고 했다. 양반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주지말고 국민교육을 했다.



박평일 (농대 69)

/ 박평일의 삶며 생각하며 /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 김우중 회장의 파란만장 일생을 돌아보며

얼마전 한국 김우중 회장의 타계 소식을 듣고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 그의 자서전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는 책을 일어침과 지하실에 걸쳐 나누어 진열되었는 책꽂이들을 몇 번이고 뒤지며 찾아 보았다. 어디에 장박혀 있는 지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지하실 책꽂이 한 구석에서 '재벌 25시', '세계가 열린다. 김우중의 미래가 보인다' 는 김우중 회장의 성공담을 주제로 한 책들이 눈에 띄어 책장들을 넘겨보다말고 다시 제 자리에 꽂아두었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가의 길을 꿈꾸던 젊은 시절, 김우중 회장이 일군 신화는 나의 꿈이었다. 내가 대한민국 일회 무역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것도 김우중 회장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다.

서용역 앞은 지날 때마다 우뚝선 대우 실업 새 사옥을 우러러보며 "나도 언젠가는 제 이의 김우중이 되겠다" 는 결심을 수도없이 하곤 했었다. 70년 대 중반에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만 해도 백화점들을 아무리 샅샅히 뒤져보아도 'Made in Korea' 제품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 Sears 백화점 남성류 색션에 진열된 대우실업이 수출한 와이셔츠가 유일한 한국 제품이었을 것이다. 그 러ந்த으로 김우중 회장에 대한 서적들을 여러권 구입해서 읽어보았다. 그러나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세계는 넓고 할일 많다' 는 그의 책 제목과, '그에게는 이 지구가 너무 좁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는 그에대한 인상밖에 없다.

흔히들 김우중 회장을 '풍운아' 라고 부

르기도 한다. 그러나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어찌 김 회장 뿐이겠는가? 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삶은 그 형태와 과정이 서로 다를 뿐 풍운아적이고 신화적이라는 것이 나의 신념이다.

일년전에 스티브 호킹이 숙환인 루케릭 병으로 76세 나이로 사망했다. 나는 그의 죽음을 두고 "큰 별이 우주 속으로 사라졌다" 는 제목의 잡필을 남긴 적이 있었다. 인간들은 죽으면 우주 속 하나의 별로 사라진다. 그는 "인생이 재미가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라는 신념으로 파란만장한 자신의 인생을 즐기며 살다 죽었다. 죽기 전에는 "나는 죽음을 인간의 뇌가 부품이 고장이 나서 작동을 멈춘 컴퓨터로 생각한다. 고장난 컴퓨터에는 천국이나 사후 세계가 없다." 는 천재 물리학자다운 골통같은 유언을 남기고 사라졌다.

김우중 회장이나 스티브 호킹이나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 쉬지 않고 전력을 다해 치열하게 질주해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멈추면 비로써 보이는 평범한 삶의 이치' 를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선가에서는 "풀 위에 맺힌 한 아침이슬 방울 속에 우주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 고 한다. 우주의 광대함을 알기 위해서 비행선을 타고 우주를 다 둘러볼 필요도 없고, 지구의 광활함을 알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지구 곳곳을 다 여행해볼 필요도 없다 의미 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

아인슈타인은 죽기 얼마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 "나는 별이 하늘에만 있는 줄 알고 평생 별을 연구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진짜 별이 내 속에 있는 줄을 이제서야 깨달게 됐다. 만약 이 세상이 다시 태어난다면 물리학자가 아니라 배관공(plumber)으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다 가고 싶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은 위대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대한 사람과 위대하지 않는 사람만 존재할 뿐이다.

미국 인디언들의 항변

백인들의 눈에 우리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대지에 가까이 삽니다. 당신들이 신을 믿듯이 우리도 우리 신을 믿습니다. 우리에게겐 우리의 신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신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은 비구름과 햇빛과 옥수수 등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들의 신에 대해서 들리본 적도 없을 때부터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당신들의 신이 그토록 위대하다면 우리의 신이 내게 말을 걸듯이 내게 말을 걸어보라고 하십시오. 백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직접 말합니다. 당신의 신은 잔인하며 전능하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항상 악마와 죽은 후의 지옥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우리의 신은 전능하고 선한 신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가야할 저승에는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종교로 개종하니 나는 나의 신과 나의 종교를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당신들의 종교보다는 나의 종교에 훨씬 더 많은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피 족 어느 연장자가 백인 선교사에게 한 말-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혼자서 교회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그나이에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에레베이트 산 정상에 처음으로 정복한 걸로 알려진 뉴질랜드 출신 등산가 에디먼드 힐러리가 "산이 그곳에 있었기에 올랐"고 말했다던 것처럼 교회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는 것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표현일 것이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들의 종교와의 인연은 숙명적이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면 유대교 신도가 되고, 미국에서 태어나면 기독교 신도가 되며, 인도에서 태어나면 힌두교 신도가 되고, 티벳에서 태어나면 불교 신도가 되며,중동에서 태어나면 모스람교 신도가 된다. 또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 북한에서 태어나면 무신론자가 된다.

나는 티벳 불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종교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는 주장에 깊게 공감한다. 그는 서구 기독교인들을 향해 또 이렇게 권면한다. "비록 붓다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 닿더라도 나는 당신들에게 기독교에서 불교로의 개종을 권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가 참 예수를 체험하십시오,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붓다와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인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 원주민 인디언들이 겪었던 수난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백인 기독교인들에 의해 일억 가까운 인디언들이 살해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미국 인디언들의 숫자는 5 백만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동포들의 숫자와 비슷한 수치다.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다는 의미는? 나는 회개는 발상의 전환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은 나의 눈으로만 보던 것들을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동쪽에서 보던 것을 서쪽에서 보는 것이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게 되고, 상대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내 생명은 우주보다 더 귀하고, 내 생명을 나를 위한 불쏘시게다. 내 자식들을 소중하고 내 자식들은 내 자식들을 위한 소모품이다." 하는 식의 신앙적 이기심들이 다스나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전장에서, 교육현장에서, 민주화운동까지” 용기와 신념으로 일군 한평생

김종을 박사 (사대 51/ 전 동서대학 총장)

2020년이 시작되기 며칠 전 매서운 추위가 있던 어느날 전 동서대 총장이자 서울대 뉴욕동창회 24대 회장을 역임했던 김종을 박사를 만났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많은 교육활동과 사회활동을 마무리하고 고즈넉한 은퇴 후의 삶을 즐기는 김 박사님의 자택에서 사모님이 준비한 따뜻한 우영차의 향기를 맡으며 파란만장했던 김 박사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글/정리 박정연 편집장>

-어린시절 이야기를 들려달라

625 수복후인 1950년 9월 부터 나의 고향 마을은 공산군의 습격을 받았다. 소백산맥의 자락 지리산과 머지 않는 산간 마을이라 공비들의 본부가 되었다. 항토방위를 위해 귀향한 모든 학생들이 모여 학도대 (Student Army)를 조직하여 경찰 민병대와 합류하였다. 밤에 방어를 하고 낮에는 공비 본부를 적진을 공격하였다. 1951년 학교가 시작되었고 서울대 사범대학에 입학원서를 냈다. 그 중 나는 영문과를 선택했다. 지금도 내 선택을 만족한다. 저명한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인 피천득 교수를 만난 것도 그때다. 대학 시절 2학년까지는 부산에 머무를수 있었다. 부산대학에서 강의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공보원 (USIS)에서 번역관으로 일했다. 대학 졸업 후 부산여자 중학교에 영어 교사로 근무할 수 있었다. 1956년 제대를 하고 부산 여자고등 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다 1959 유학길에 올랐다. 유학 후 생활은 어떠했나 그 당시 미국 유학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North Dakota North Dakota 주 작은 도시에 있는 Dickinson State teachers Col-

lege에서 full scholarship를 받고 미국에 첫발을 디뎠다. Undergraduate 이지만 Scholarship을 받았고 또 영어도 배울겸 해서였다. 한 학기를 끝내고 뉴욕으로와 Bank Street 사범대학원에서 tuition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였다. 이 대학은 당시 진보주의의 교육론을 지향한 학교로 유명하였다. 나는 여기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고자 했다. 교생실습을 하면서 교사중심과 학생중심 교육이 어떻게 한국과는 다른가를 뼈저리게 배울수 있었다.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에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던 전공 과목 즉, 영어 교수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이중언어 교사 자격증 시험관으로도 활동했는데

1980년대 이민 온 학생들이 영어능력 부족으로 미 공립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여 연방정부는 1968년 Bilingual Education Act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이민자 학생들이 자기들 모국어를 잘 이하는 학생이 20명 이상 되면 영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할 수있

는 교사가 수업을 하도록 지시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 중학교에만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온 학생 들이 많이 밀집되어있는 Queens 지구에 Bilingual학급이 신설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자격 시험에 나는 뉴욕시 교육청에서 시험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렇게 1994년까지 활동했다.

- 대학에서도 이중언어교육을 하셨다는데

Mercy college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던 중 한국에서 유학을 왔다가 영어실력이 모자라 대학입학을 못하고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동 대학 총장과 함께 신설한 뉴욕주 최초 프로그램이었다. 1, 2학년 까지는 영어와 한글을 겸용해서 수업을 받고(각과목을 패스하면) 3학년부턴 영어로 수업을 받는 제도였다.

- 동서대 총장을 역임하신 계기는

부산에 있는 동서대 이사장이 나를 찾아와서 총장직을 권유했다. 나는 이 대학을 질적 및 양적으로 일류대학으로 발전 시키기위해 학과를 10개로 늘렸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수를 채용 하여 영어교육을 강화하였

다. 이어 MIT 공대와 연구 결과 교환체결을 위해 준비중 이었다(이었다 (MIT 교수 동서 대학 방문). 하지만 그 당시 한국 중소 사립 대학은 이사진 권한이 막강하였다. 동서대학도 예외는 아 니었다. 교수 강사 채용에 있어 나와 충돌이 잦았고 그의 총장 권한 침해 등을 이유로 사임하게 되었다.

- 한국 원어민 교사 교육에 앞장 선 이유는

동서대학 사임후 나는 정부관계자를 찾아가 원어민교사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였다. 미국 대졸자 원어민(Native speakers)을 영어 학급 교실에 투입시켜 영어를 직접 가르치게 하는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 이었다. 다행히 당시 정부가 야당시절 인연을 가진 분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가 이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통과된 것은 나의 교육과 관련한 배경과 경력이 주요 했다고 생각한다. 내 전공은 외국어 교수법 이었다 (Teach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 당시 이 전공에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교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신뢰를 주었던것 같다.



Dinkins 시장 후보 후원행사에서 김 박사(맨 왼쪽)가 Dinkins(오른쪽)시장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영어 교육현장을 방문한 모습(맨 앞쪽 가운데). 김 박사 왼쪽이 원어민 교사. 오른쪽이 아들 Bobby.



김 박사의 자택에서 김영삼 당시 야당 후보의 뉴욕 후원회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 박사 가족.

/ 사람, 사람들 /

- 한국에서의 영어교육 활동에 대해 더 말씀하신다면

1994년 경남교육청산하 중등학교에 최초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중등학교 영어 교육 역사상 최초로 실시 한 획기적인 프로젝트였다. 총장실에서 시달린 나에게는 그간 공부한 전공분야와 경험을 자유롭게 발휘 할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이것은 나의 일생에 크다면 행운이며 내가 미국에온 꿈을 이루었다는 불수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원어민 (교포 2세 포함) 50명을 선발 하였다. 나는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 학교를 방문하여 그들의 사적 및 수업에 대한 문 제점을 상담하고 미국에 왕래하며 모임을 계속해 나갔다. 1996년 서울시 교육청에서 원어민 교사 요청이 있다. 나는 원어민 교사 50 명을 선발하여 지원자들에게 영어 교육방법론 수업 을 받게 하였다. 그들은 웨체스터에있는 Manhattanville 대학에서 교육 받았다. 이 후 3년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IMF로 모두 올스톱이 되었다. 서울시 600여 중·고등 학교에 최소 원어민 교사 한명씩을 배치하 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 이후 한국에서 영어교사를 훈련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은 비교적 재정이 많이 들지 않는 것으로 경남 교육청 산하 중등학교 영어 교사를 직접 한국에서 훈련을 시켰다. 교육청에서 50명 교사를 선출하고 미국에서 자격증이 있는 영어교사 6명을 선발하여 교육청에서 하루 5시간 수업을 같이하면서 수업을 하였다. 2시간씩 계속 같이 하면서 교사들의 영어 실력이 현저히 진전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두 해에 걸쳐 경남 교육청에서 중등학교 교사훈련을 하였다.

-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신걸로 안다

1989년 인종화합 특별위원회 발족되었는데 뉴욕시장 주관으로 뉴욕시 각 소수민족 사이의 화합을 위한 대대적인 행사가 뉴욕 주지사, 시장, 천주교 주교 및 시민 3,0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Dinkins 시장의 초청으로 한인 커뮤니티 대표로 연설을 하였는데 나의 연설문 전문이 한국어로 번역 되어 중앙일보에 게재되었다. 또한 그날 저녁 채널 13에서 방영 되기도 했다.

- 디킨스 시장 후보 후원회 회장 활동도 했다

1987년 David Dinkins 흑인 후보가 뉴욕시장으로 출마하며 막강한 전 검찰차장 출신 Rudolph Giuliani와 대결 하게 되었다. 누구도 Dinkins의 승리를 믿지 않았다. 그 때 진보적인 개신교 목사님들과 나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 흑인 인 Dinkins 후보를 지지 를 결정했다. 그 이유는 흑인들의 민권운동으로 Civil rights acts 가 1964년 통과되어 "누구든지 인종, 종교, 국가, 국적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라는 법안이 시행 되었다. 70년대 이민법개정으로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목사님들의 의사에 따라 내가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기로 했다. 초기에는 우리를 동조 하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한국 청년 두레패 (복, 삼모, 갱거리 등)를 동원하여 시장후보와 같이 가두 선거를 진행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지금부족은 그때 청년 두레패에 점심 한끼 사주지 못한 것이 아쉽다. Dinkins는 당선되어 뉴욕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시장을 배출 시켰

다. 그결과 4개월이나 끌던 Brooklyn지역의 흑인들의 한인 청과상 Apple Store에 대한 불매 운동도 끝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Asia국이 신설 되어 한국과의 연락책이 되었다.

- 고국의 민주화 운동에도 힘쓰신걸로 안다

1987년 고국에서는 독재정치가 항거하여 매일 같이 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자유를 외치며 데모를 하였다. 이리사황에서 해외에서도 고국 민주화에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 해 뜻있는 40여명이 모여 민주화추진 뉴욕 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나는 실행위원으로 Proclamation을 작성하여 한인신문을 통해 지원을 호소를 하기도 했다.

- 김영삼 후원회 회장으로도 활동하셨는데

극렬한 데모의 결과 직선제가 통과되어 1972 처음으로 국민이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강한 군부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독재자의 후예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 하였으니 민간정부가 들어서는 어려운 상태였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활동이었지만 그 시점에서 민주화추진회는 해산 할 수 없었다. 군사정부 종결을 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김영삼 야당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뉴욕에서는 김영삼 후원회를 결성 하게 되었다. 이 후원회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 마지막으로 후배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나는 미국 대학원에서 전공과목에 치중하여 책을 많이 읽지 못했다. 은퇴후 Philosophy, Art history, World history 등 책을 읽으려고 계획했으나 게을러 지나가는 fiction 이나 non-fiction만 읽고 있다. 내가 Egypt에 여행을 갔을때 그나라 고대 왕들의



평생의 내조자인 부인 (수필가 김옥수)과 다정하게 함께 한 김종을 박사.

위 하지 못하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동창, 선배, 후배 들과 주고 받는 극히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 진다. 그래서 우리 언어에는 "Humanity" 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그 반면 동창 선배, 후배 관계를 중요시 하지않는 이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말 "동창 선배, 후배"에 상응 하는 영어 단어가 없다. "정 때문에, 정을 두고, 정이 없다" 를 어떻게 영어로 잘 표현 할수 있겠는가? 이같은 상의한 점이 각 민족의 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것이다. Greta Thurberg는 생다섯 어린나이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로 알려졌다. 그는 타임지의 2020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 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UN에서 Climate changes의 중요성에 관해 연설을 하였다. 내가 놀린 것은 그소녀의 연설인 내용 보다도 그 소녀의 발언에 대한 세계인들의 (특로 Europe) 반응이다. 우리가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일수 있었을까?

다. 그 당시는 교포라곤 별로 없었다 식당에서 접시를 수전장 딱고 날랐다. 주말도 쉬지 못했다. 여러 후배들은 여유가 많은 것이니 명상을 하면서 우리 모교 Motto도 속고 해 보며 Humanity도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Greta Thurberg는 생다섯 어린나이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로 알려졌다. 그는 타임지의 2020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 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UN에서 Climate changes의 중요성에 관해 연설을 하였다. 내가 놀린 것은 그소녀의 연설인 내용 보다도 그 소녀의 발언에 대한 세계인들의 (특로 Europe) 반응이다. 우리가 그렇게 반사적으로 반응을 보일수 있었을까?



1990년 남아공인종차별 반대 시위와 27년간 투옥 생활을 한 볼스만델라의 뉴욕방문을 환영하는 퍼레이드에 한인대표단과 참석했다. 사진은 한국 전통 문화를 선보인 부인회와 함께.



뉴욕시의 인종화합 특별기구 발족식에서 한인대표로 선정된 시사기 신문에 실렸다.

| | |
|------------------|--|
| 학력 | 부 임명)/ 1992 미 의회 행정장지구 소위원회 위원장 자문원/1994 미 민주당 New York 지구 한인 연합회고문/ 2000 Hillary Clinton 상원 위원 후보 Keynote Speaker /1986 편집위원장 "미국속의 한이사회" 한국 민주화추진 New York 위원회 실형사/ 1989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자문위원/ 1990 Parade 추진 위원/ 1993 평화통일 자문위원 (대한민국 정부 임명)/ 1994 미 민주당 New York 지구 한인 연합회고문/ 1950 항토방위 학도대/ 2010 한국정부 학도대 6.2.5 전쟁시 공헌 인정 표장수여 |
| 경력 및 사회활동 | 1995 평화통일 자문위원 (대한민국 정 |



/ 여행기 /

천수(Tianshui) /난주(Lanzhou)

중국에서 고대 실�크로드를 타고 과거 대상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보면서 그들이 지나면서 본 세상물정과 또 흔적을 찾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에 바로 옆에 있는 것 처럼 지내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는데 약간 실망했다.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실�크로드와 굳이 비교하자면 중국의 실�크로드는 대상들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 달랐다. 카자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실�크로드 도시들은 그들의 숙소들이 보존되어 있어, 다음 날은 낙타가 몇 십킬로 가서 대상들이 쉬어야 하는 곳은 어딜까? 지도를 놓고 상상하고 또 퀴즈 문제 처럼 맞추어 보면 어김없이 거기엔 숙소가 있었고 또 물이 있었다. 중국의 실�크로드는 (절이 그랜 숙소 기능도 하겠다고 하지만) 남아 있는 불교 사찰은 종교 중심으로 관광지화 되었고 그런 대상이 머물고 간 숙소와 시장 등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신규천 (상대 73)



다시 2시간 이동하여 부처 사리를 모셨다는 #법문사(사진)에 도착하니 이 절의 가치가 5성급 문화재로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중앙정부 고위 관리나 지방 성장급 관리는 취임 후 바로 여기로 와서 인사를 한다고 한다. 강택민, 후빈타오, 심지어 현 당총서기 시진핑도 왔다고 흔적이 있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고위 관리들은 일단 오면 시주를 몇 억씩 한다는데 대체 그 많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했다.



중국 4대 석굴 중 하나라는 #맥적 산석굴(사진) 로 이동. 바위산에 수많은 석굴을 만들었는데 재질은 Clay 인데 지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부처를 만들어서 절벽에 동굴을 파서 그 속에 모시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사리에 대해 언급하다가 갑자기 고위 관리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서 잘 하면 전사리를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박물관 전시실에 서둘러 가보니 진짜 놀람게도 #부처님 진 사리(사진)가 금 장식과 조명으로 비춰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하 보궁도 둘러봤다. 한국에서 수차례 가이드로 왔다는 사람도 한번호 이런 기회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우리 팀은 운이 좋았다. 관람객도 우리가 입장할 때는 없다가 나올 때에는 몰려오는 등 우리 팀의 여행 운이 좋다고 서로들 얘기했다. 진나라 발생지인 천수로 이동하였다.



북위로부터 당, 송, 명대에 이르기까지 추가 및 보수를 하여 현대에 이르렀는데 신, 불신을 떠나 다양한 형태의 부처상을 절벽에 동굴을 파서 어려운 작업을 했는데서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파리 루브 박물관의 모나리자를 연상케 하는 '미소 짓는 부처상'도 몇 개 있었다.

2시간 이동하여 #수령동 석굴을 구경했는데 이진 세계 최대 규모의 #마애석불(사진. 절벽을 깎아서 만든 석불)이라고 자랑한다.

일행으로 온 분 중에는 비구니 스님 두 분을 포함 모두 네 명의 스님들은 이번 패키지 성격이 불교 성지 순례 이어서인지 실�크로드에서 만나는 불교 성지 또는 유적지에서는 불교 의식으로 합장하여 기도를 하며 때론 주위를 같이 돌면서 큰소리로 불경을 외운다.

중국의 문화재는 대부분 입구에서 표를 구매한 후 전통차 같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여 목표하는 건물이나 전시물에 이르게끔 개발해놓았다고 한다. 이는 중국의 대륙적인 스케일로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입장료가 싸지는 않다.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에 등급을 매긴 후 관리 주무 관청을 지정하는 듯 했다. 재미있는 점은 5성급 정도 되니까 한글 설명이 부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 관광객이 많아서 인지 아니면 5성급 정도가 되니까 그런지 더 관찰해 봐야겠다. 5시간을 이동해 난주를 지나치고 유가협에 도착해 휴식했다.

/ 자서전 /

태양을 꿈꾸는 사람 미네소타 김권식



김권식 (공대 61)

태양광 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 'EVS, Inc.'의 대표이자 '2010 MEDA(Metropolitan Economic Development Association) 올해의 기업인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한인 기업가 김권식 동문의 모든 걸 담았다. EVS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엔지니어가 일하고 싶어하는, 미네소타에서 손꼽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30여 년 동안 로타리안(Rotarian)으로 활동하면서 국제로타리 재단 '폴 해리스 펠로우(Paul Harris Fellow)' 표창을 네 차례 수상하는 등 부의 사회 환원과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한 김권식 박사의

지난 삶이 오롯이 담겨 있다. 김 박사의 어린 시절 추억부터 '영원한 사랑'과 결혼을 하게 된 사연, 미국 유학 시절 이야기, 지금의 EVS 기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진다. 김 박사가 가족, 이웃, 지인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일상 글은 평범한 듯하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그가 들려주는 얘기는 봄날 꽃향기처럼 아름다운 삶의 향기와 아련한 추억을 선사한다. 이 책에는 또한 김권식 박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지인들의 글도 함께 담아 박사의 참모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김 박사는 기업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분이다. 평소 '자연'을 이용해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비전을 품었던 그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회사인 EVS를 창업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EVS, Inc.'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하게 입지를 굳히고 몇 손가락 안에 꼽히

는 태양광 에너지 중소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박사는 EVS 부사장 스티븐 헨슨의 표현대로 '높은 도덕성(high integrity)'과 '친절함과 따뜻함(kindness and compassion)'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에 정직과 부지런함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EVS는 태양광 에너지 산업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관련 엔지니어가 일하고 싶어 하는, 미네소타에서 손꼽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회사가 궤도에 오르자,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실천했다. 회사 순수익의 반을 직원들 보너스로 나눠주었으며 절반 역시 사회사업 재단 'EVS CARES' 발족 기금에 사용하였다.



Kim Kwon-sik (ETI)의 기업 파트너로서 특별공로상을 받기도 했다. 또 30여 년 동안 로타리안(Rotarian)으로 활동하면서 국제로타리 재단 '폴 해리스 펠로우(Paul Harris Fellow)' 표창을 네 차례 수상하는 등 부의 사회 환원과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했다. 김권식 박사의 지난 삶이 담긴 회고록은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분명 '삶이란 이렇게 사는 거다'라는 큰 감동과 울림을 줄 것이다. 이 책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미네소타의 존경받는 기업인, EVS 창업자 김권식 박사의 회고록은 젊은이에게 분명 또 다른 새로운 꿈과 도전을 심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 자서전 /

미국여행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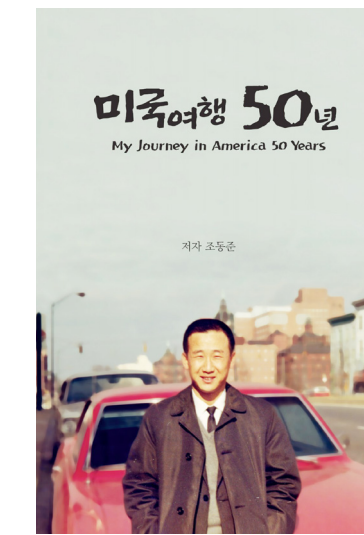


조동준(의대 57)

산부인과 전문의 조동준 동문이 최근 자신의 회고록 '미국여행 50년 (중앙 A&D)'을 내놨다. 조 동문은 1938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경남 중교와 서울 의대에서 수학했다. 졸업후 해군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한 뒤 미국에 건너왔다. 동부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마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었다. 바다를 낀 LA 서부 지역 사우스베이로 터전을 옮겨 조동준 산부인과를 개원, 5천여명의 아기의 탄생을 도왔다. 미주 서울대 의대 동창회장과 사우스베이 라이온즈 클럽 회장, 나성 미주 평화통일 자문위원

원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조 박사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자서전을 내면서 거창한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다. 50년간 미국에 살았으면 더 대단한 제목이 나올만도 했을 텐데 그는 50년의 세월을 미국에서의 여행기 같은 기분으로 썼다. 시간별 흐름이지만 의외로 여행기 같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어떤 장소나 인물을 만난 듯이 회고했다. 물론 자서전 간행 이유는 추억을 더 잊기 전에 남겨놓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다. 조 박사는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곳인 한국에서 미국을 찾아왔으니 무척이나 행운이라며 "또 미국에서 이민자가 이렇 게도 많이 살고 있으니 또한 다행이다. 산부인과 의사로 족히 5000명이나 되는 아기의 탄생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가 인생에서 꿈은 행운은 2가지다. 첫째는 미국에 온 것 자체다. 둘째는 동부에서 서부로 1981년에 이주해온 것. "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서

부는 기후도 좋고 분위기가 리버럴해요.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어디가서 푸대접이나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일이 훨씬 적습니다." 나를 5000명이 넘는 아기를 받았지만 일만 한 것도 아니다. 바로 한미박물관의 초창기 멤버다. 그는 1980년대 초반 건축가 데이비드 현씨의 신문기사를 보고 무작정 찾아가 만났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도 평소 한미박물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박물관 건립위원회에 참여 초대 기금모금 위원장도 맡았다. 광운 화백의 그림도 10장이나 받아서 기금도 2만달러를 조성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당시 위원회에는 도산 선생의 막내 딸 안수산 여사를 비롯 김영옥 대령 새미 이 박사 서동성 변호사 민병용씨 유영명 박사 "한인들의 이민역사를 후세에 남기자는



취직했지만 초기 멤버로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여야 했는데 누군가의 프로젝트로 바뀐 것같고 기금 운영도 보다 더 투명하게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십년이 지났지만 이뤄지지 못한 애석함과 나름의 개인적인 원인 분석이다. 책에는 이밖에도 정운찬 전총리 김영옥 대령 안수산 여사 한성학 학형 등의 스토리도 수록돼 있다. 그에게도 후회가 있다. 남편의 사업실패로 다시 공부해서 교편을 잡아 6남매를 키운 어머니에 게 큰 효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펼쳐는 '화합의 장'

서울대 미주동창회 제29차 평의원회의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2020년도 평의원 회의의 평의원 및 일반 동문들이 함께 참가, 만남의 즐거움과 배움의 기쁨이 가득한 이색적인 행사를 마련했다.

주최측에서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동문 여러분께 기존 평의원회의와는 다른 색다른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크루즈 여행을 준비했는데 이번 행사에서 특별히 명망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심도 깊은 강의를 해줄 세미나 시간을 마련했다.

Manhattan Cruise Terminal 에서 출항하여 버뮤다로 출항하는 Carnival 선박은 길이 272.19 미터, 폭 35.36 미터, 승무원 수 1100명, 총 탑승객 2764명으로 구성된다. 쪽빛 버뮤다의 물색을 보며, 선내에서 평의원 회의의

열면서, 미주 동문들과 지인들도 참가할 수 있는 추억이 담길 것이다. 버뮤다는 미국 해안에서 약 600마일 떨어진 북대서양에 위치한 국가로 여러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 사람이 사는 섬들은 20여개이다. 버뮤다의 위도는 대략 아틀란타와 제주도과 비슷하다. 크루즈 선상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은 수영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극장, 카지노 등이며, King's Wharf 에 내려 근처에 있는 버뮤다의 수도 해밀턴 관광과 선택적인 개인 관광 등을 할 수 있다. 협동과 친목을 하면서 단합하고 서울대 미주동창회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하는 장으로 이번 크루즈 평의원 회의의 행사에 많은 동문님들의 참여를 바란다.



세/부/일/정

제 1 일 <뉴욕 항>

12:30/ 보딩시작
4:00pm/ 출발
- Manhattan Cruise Terminal 도착, 승선수속 시작, 여권, 신용카드, 크루즈 승선권 확인 후 SHIP카드(룸카드)를 받아 객실(큰 가방은 항구도착시 택을 붙여 팀과 함께 포터에게 부탁하면 객실로 배달됨)로 입

실(점심으로 스낵 및 바비큐가 준비)

- Manhattan Cruise Terminal 출항, 버뮤다 항발

제 2일 <항 해- 선내활동>

-전일 항해합니다.
-선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여러 가지 선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극장 등)선상에서 즐기십니다.

제 3 일 <KING'S WHARF 버뮤다>

8:00am 도착 4:00pm 출항
- 버뮤다는 미국 해안에서 약 600마일 떨어진 북대서양에 위치한 국가이다.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람이 사는 섬은 20여개에 불과하다. KING'S WHARF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버뮤다의 수도 해밀턴 관광을 즐길수 있다
-KING'S WHARF 도착, 옵션관광 또는 개인 관광

제 4 일 <항 해- 선내활동>

-전일 항해합니다.
-선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여러 가지 선상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 (수영장, 카지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극장 등)선상에서 즐기십니다.

제 5 일 뉴욕 항

8:00am 도착
-롱비치 선착장 도착

크루즈 여행신청서
CRUISE RESERVATION APPLICATION

| | | | |
|---|---------------------------------|---------------|--------------|
| 신청자 | 성명(한글) | 영문이름(English) | 생년월일 |
| 연락처 | Address | | |
| | Cell | | |
| 신청캐빈종류 | 발코니(Balcony) | 창문(Window) | 인사이드(Inside) |
| DEPOSIT | 예약금 \$ (잔액은 출발 91일 전까지 완납해야합니다) | | |
| 금액(Total Amount) | 납부(Payment) | 잔액(Balance) | |
| 신청인 _____ 는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기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서명하여 확인합니다. | | | |
| 신청인(서명) _____ / / 2019 | | | |
| 서울대미주동창회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 | | |

www.snuua.org

제29차 평의원회의

버뮤다 크루즈

서울대 미주동창회

BERMUDA CRUISE

에메랄드 빛 물길 가르며 피어 오르는 소통, 화합, 비전

6/25/2020 (목)~6.29 (월) - 4박 5일

| | | |
|-------|-------------------------------|----------------|
| Day 1 | Thu New York City | Depart 4:00 PM |
| Day 2 |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 |
| Day 3 | King's Wharf / Arrive 8:00 AM | Depart 4:00 PM |
| Day 4 | Cruising / 세미나, 평의원회의 | |
| Day 5 | New York City | |

*추가등록마감 2020년 2월25일

선착순 50명
\$200 지원

각 지부 평의원회인 동문님께서는 선착순 50분께 미주동창회에서 200불이 지원됩니다.

| | |
|------|----------------------------|
| 인사이드 | \$ 9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
| 오션뷰 | \$ 1,0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
| 발코니 | \$ 1,349 (Tax + 항만세 포함) 1인 |

참여 문의: 백옥자 818-395-1967(okjapaik@gmail.com)
동창회 718-463-3131(petershinesq@gmail.com)*
피터킴 213-388-4000(peterk@usajutour.com)

◆ 예약때 필요한것
여권 정보 영문 성함(ID 성함과 동일)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발급일 만기일(신청서 참조)

◆ 크루즈타실때 필요한것
시민권자: 여권 영주권자: 여권 영주권 한국에서 오신분들: 여권 ESTA 사본, 전자항공권사본

*항공료 및 공항에서 승선까지비용은 별도입니다.
*Group 이라 최종 결정을 신중히하시고 취소가안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목(공대 59)

/야만인과개 이야기 /

“위원장 동무, 글썽 싫다니까요”

<거창한 서두>

정치판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코미디언 밖에 없고, 진실만을 쓰는 사람은 아무게 같은 소설작가밖에 없다.

<그래서 쓰는 이야기>

번기문 UN 사무총장은 UN 청사앞들에 데모를 하고 있는 군중들을 창밖을 통해 내려다보면서 영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이게 다 새꼬치 때문이야” 번 총장은 이렇게 뇌 깔리며 몇 일간의 벌어진 일들이 영화의 장면같이 머리에 스쳐갔다.

아이티 지진의 참사가 발생했다. 번총장의 위상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을 즈음 불란서의 새꼬치 대통령이 UN의 특별회의를 요청해왔다. 아니 요청이 아니라 세상에 먼저 뉴스를 터뜨려 번 총장을 압박해 왔다. 내용인즉 유럽 연합이 7억 유로 하나까 10 억 불의 지원 자금을 모금해줬는데 그돈 집행을 미국에게 주도권을 줄 수 없고, 이를 공정하게 집행할 기구를 창설하되 옛날 식민을 했던 프랑스가 최소한 반 이상의 지분을 가져야 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그의 의도대로 특별회의가 열리던 회의 시작에 모두에게 그는 열변을 토해냈다. “미국은 치안유지활동과 점령군 활동이 어떻게 다른지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이티시민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영구 주둔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게 전적으로 치안 유지 권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열변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번 총장에게 메모가 건네 졌다. 그것은 CNN 아이티 특파원이 보낸 긴급 뉴스였다. 내용인즉 큐바의 카스테라 의장, 브라질의 훌라훌라 대통령, 그리고 파라과이의 망고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베네수엘라 배척소 대통령이 보낸 특별 전세기를 타고 조선인민 공화국 치안유지 군이 아이티에 지금 막 도착, 독자적인 치안 업무를 시작했으며 그 인솔대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 셋별정군 김정은 이라했다. 그리고 그의 도착 성명은 이러 했다나. “우리의 형제 아이티 인민들을 위해 우리 조선인민공화국은 어떠한 대가도, 아

무런 자금지원도 요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 형제들을 위한 봉사만을 할 것이다” 회의는 다음날 속회하기로 하고 정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속회에 앞서 미국의 히히히 장관이 번총장실에서, 3인이 긴급 회동을 갖자는 요청을 받아 3인이 자리에 앉기 바쁘게 히히히 장관이 녹음기를 들고 있었다. 이 녹음은 김정은 셋별 장군과 아이티 대통령과의 대담 중 김정은의 발언 내용이었다. “대통령 동무, 내래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하겠수다래, 아이티 공화국 설립이후

휘아래 행동할 수 없다는 성명을 이유로 아이티에서 추방토록 결정되었다

<사건은 더 에스컬레이드 되어서>

사건은 엉뚱하게도 UN청사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에서 세계평화실천이란 NGO 에서 30명이 UN청사 앞에서 데모를 벌리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세계평화노력을 방해하지 말라” “미제국의 아이티 점령의 야욕을 규탄 한다” 등등 구호를 외치면서 말이다. 그런가 했더니 어느 틈인가 15명이 길게 의자에 앉아 머리를 깎는 퍼포먼스가 벌어

닥 틈에서 물어버린 음식 찌꺼기가 나타났고, 그 음식 찌꺼기 안에서 누가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개 빠다귀가 다량 발견되었다 더구나 일이 커지느라고, 그것을 처음 발견, 기사화 한 것은 프랑스로 웅드 기자 이었고, 그 기자는 부르짓도 발발리 친구였는지라 세상은 더욱더 시끄러워갔다.

어느 틈인가 UN청사 앞에는 동물애호가협회, 가족 모피 옷 배척운동 연합회 등등이 구름같이 모여 데모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북조선의 개고기를 먹는, 그것도 남의 개를 몰래 훔쳐 먹는 행위를 전 문명세계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걸쳐 개고기가 웬 말인가” 등등 구호로 말이다 그러던 중 가족모피 옷 배척운동원 들이 나체에 흰 호랑이, 사자, 곰 등등의 바디 페인팅으로 그리고서 알몸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이 꼬이는 것인가, 한국에서 온 세계 표현의 자유지킴이 실천본부 데모대 앞에서 흰 호랑이 바디페인팅을 한 여자가 그중 한명의 코앞에서 영영이를 흔들며 댕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에서 온 실천연대 데모자는 영영이를 밀쳐 냈다고 하는가 하면, 그 여자는 성적희롱을 당했다며 CNN 기자에게 설명을 하며 이미 형사,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소 한다고 떠들어 대고 있었다. 와글 와글 거리는 청사 앞을 프랑스의 새꼬치 대통령의 초대로 번총장은 맨해탄 일식집으로 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새꼬치 대통령이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인권과 개인의 자유가 만개되는 진정 민주주의의 현장을 보는 것 같군요, 그리고 저 호랑이 바디페인팅 여자 영영이 확실히 내 마누라 보다 보기 좋군요”

<나의 펀치 라인>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아 여보시랴오, 내래 김정일이오이다. 성님 동무, 우리 셋별장군 김정은이 가정교사 같은 특별지도위원이 필요하고, 그 공적으로 55호실을 신설했소. 그런데 아무래도 성님 동무가 이 55호실을 맡아 주어야 겠소, 내래 총리급으로 모시겠오이다” “아이구 어찌 내 전화번호는 아셨는지, 어찌 되었던지 하지만 나는 사양 합니다” “성님 동무 그러지 마시랴오” “위원장동무 글썽 싫다니까요” “여보 또 낮잠 자다가 꿈을 꾸거요, 싫다니 무엇이 싫다는 것이요” 마누라의 소리가 들렸다. 휴우 꿈이었구나...



쿠데타가 30 번 이상 일어났고, 동무도 작년에 쿠데타로 대통령 된 것 아니겠소, 이제 1년 안에 최소한 30억 불의 구조자금이 들어 올 것인디, 동무래 그것도 그림의 떡이 되셔야 되겠소. 2월만 제게도 6억 불인디 말이오이다. 오늘 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 말이오, 쿠데타 일으킬 씩이 보이는 놈들 없애버리는 특수 암살조, 골치 얇은 놈들 처 박아 두는 요덕수용소 정치국원, 마카오, 스위스은행의 몇 구좌를 움직이는 아이들 등등 프로군 애들만으로 짜서 300 명 데리고 왔다가 이 말 이오이다. 그러니 동무 안심하고 나를 믿으시랴오, 그카구 6억 불 중에서 2억불만 우리 공화국에 주시랴오.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구 말 이야오, 우리네 노동 2호 미사일 몇 개하고 세군탄두 갖다 놓게 쉬다. 그카고 몇몇 단체만 들어 반미구호, 반미데모 좀 하라구면 동무래 영구집권에다가, 미제국주의 놈들한테 돈도 꾸준히 뜯어 낼끼랴오” 한 시간후 UN 아이티 대책특별회의가 개최 되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국에 지



정홍택(상대 61)

/ 영화읽기 /

신출내기 영화광의 ‘기생충’ 감상기

“나 언대 나온 남자야”, “자랑스러운 연세인! 봉준호 동문” “봉봉봉자로 시작한 말은 - 봉준호, 봉준호, 봉준호, 봉봉봉호호”

일일이 셀 수도 없는 현수막이 지금 연세대학교 입구부터 모든 교정 빌딩에서 휘날리고 있다. 최고 학문의 전당이라는 연세대학에 동창생이 만든 영화 하나가 이렇게 상아탑을 온통 덮어버리니 만일 노벨상을 받은 졸업생이 나오면 어떤 헤프닝이 벌어질까 생각한 것은, 서울대 졸업생의 시기심에서 나온 것일까?

이 영화에 대한 작품평을 수 많은 전문가들이 경쟁적으로 써 대고 있는 현실에, 나같은 신출내기가 공연히 끼어들었다가는 큰코다칠 게 뻔하다. 그렇다고 조용히 있자니 흥미 쏠린다. 영화를 세 번 볼 정도로 열광했으니, 느낌이 없을 수 없겠는가. (앞으로 즐거움에 대한 스포일러가 나올 것이니 아직 영화를 안보신 분은 여기서 덮어도 좋다.)

영화 초두에 ‘연세대 재학증명서’가 나온다. 그런데 이것은 가짜다. 기택(송강호)의 딸 ‘기정’이 컴퓨터로 조작해서 만든 위조문서다. 어쩌나 정교한지 이것을 본 아버지의 감탄사가 기차다. “야, 서울대학에는 ‘문서위조과’ 같은거 없냐?”

전반부의 전개는 ‘기우라는 짜지게 가난한 재수생이 동생 ‘기정’이 만들어준 가짜 연세대재학증을 가지고, IT 기업 박 사장 딸의 가정교사로 취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가정교사 ‘기우’와 주인 집 딸은 급속히 가까워지고, 기우는 신분상승의 꿈을 키운다. 여기까지 보고나서, 나는 ‘아, 그렇고 그런 영화겠구나’, 지레짐작을 하며 나름대로 두 영화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 전에 본 ‘태양은 가득하리라’ 영화였다. 똑똑하지만 가난한 ‘아랑 드롱이, 이태리에 유학가 귀국하지 않는 재벌의 아들을 죽이고, 모든 서류를 위조하여 아들 행세를 한다. 영화 속 ‘드롱’의 그 바닷빛 파란 눈동자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기생충’을 보며 아들 ‘기우’를 ‘드롱’에 대입해 보았다. 하지만 ‘기우는 ‘드롱’의 카리스마에 미치지기는 커녕, 그저 아실아실한 연대스타일 젊은이일 따름이다. 영화가 진전되면서 여동생 ‘기정’이가 더 ‘드롱’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다. 재치와 행동력이 남다른 손재주, 컴퓨터를 다루는 솜씨가 꼭 서울대학생 같다. 비록 미술과 낙방생이지만, ‘기정’의 機智로 아버지(기택)를 사정 운전수로 들이고, 아버지는 다시 속임수로 아내 ‘충숙’

까지 집안 가정부로 취직시킨다. 이래 놓고 보면 ‘태양은 가득하’의 아랑 드롱 역할은 한 개인이 아니고 ‘기택’ 가족 전원이라고 보아야겠다. 어떻게 이 가난뱅이 가족이 재벌집을 통째로 삼킬까 하는 구도를 머리 속에 그려보기 시작했다.

아, 그런데 나는 완전히 헛짓였다. 후반부터 또 하나의 가족(문광과 근세 부부)이 등장한다. 영화의 대결구도가 빈부(貧富)라는 대칭은 졸업생이 나오면 어떤 헤프닝이 벌어질까 생각한 것은, 서울대 졸업생의 시기심에서 나온 것일까?



자 가족과 대결했다면 다른 영화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 영화는 나의 예상을 비웃으며 제 멋대로 나간다. 기택 가족은 지하에 있는 문광 부부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화에서 기택은 이제 신분상승의 꿈보다, 더 밑으로 추락을 무서워하게 된 것이다.

사건은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기 전, 주인 가족이 야외로 피크닉을 가느라 집을 비운 날 저녁에 일어났다. 기택 가족은 주인집의 거실에서 유리창 밖 스펙터클한 ‘자연현상’ 싹을 비싼 주인집 양주로 반주하며 가나하게 즐기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사모님이다. 비가 너무와 피크닉이 취소되고 이제 7분이면 집에 도착할테니, ‘짜짜구리’면을 금방 먹도록 준비하라는 전화였다. 초 비상이다. 가정부 충숙만 남고 세 식구가 집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그것만 빼고 미처 피하지 못한 기택, 기우 그리고 기정은 거실 소파 밑에 숨었다. 바로 그 소파 위에서 사장 부부는 부부관계를 맺는다. 본격 섹스에 들어가기 전 그들은 기택과 그가 죽에 대한 혐담을 가볍게 주고받는다. 그들 앞에서 풍겨나는 찌질한 가난의 냄새에 대해 악감정없는 잡담을 나누다가 성적 흥분

상태로 진입한다. 본인들이야 돌만 있는줄 알지만, 아들 딸과 같이 숨어서 꿈쩍없이 듣고있어야만 하는 가장 기택은 정말 죽을 맛이었다. 아니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그 밤이 지나고, 박 사장 아들의 생일 파티가 정원에서 손님들을 초대해 성대하게 벌어진다. 무드가 한창 무르익을 때, 부엌칼을 손에 든 근세가 마당에 들어서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그는 먼저 생일케익을 들고 있는 ‘기정’에게 달려가 가슴에 칼을 꽂았다. 그녀는 칼맛이 피흘려 죽어가면서도 쿨(Cool)했다. Cool 하기 때문에 기정은 죽어야 했다. ‘기정’의 행동, 두뇌 그리고 매너는 부잣집 만물이어야 어울리지, 반지하의 냄새 나는 가난에는 영 맞지 않는다. ‘드롱’이 막판에 결정적 비극을 맞듯, 그녀는 그렇게 비



극적으로 죽을 수 밖에 없었다. 동익 사장 또한 죽어야 했다. 동익 사장은 근세의 가슴에 박힌 스테이크 고행이를 빼주려 했다. 그러나 근세의 몸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내버려 둔다. 그리고 자동차 키(key)만 주워 달아난다. 이를 본 기택은 딸의 가슴에서 빼낸 칼을 가지고 쫓아가 동익을 찌른다. 왜 기택은 딸을 죽인 근세보다 먼저 동익을 죽였을까? 그렇지, 그 냄새 이야기때문이다. 비록 자기 딸을 죽였지만 근세의 냄새는 기택에게 동료의식을 불어넣었던 것이다.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냄새는 각 계층을 말해주는 계급양자였다.

이 영화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 여리가 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자식사랑’이 아닐까? 그것도 있는 자들의 ‘일그리진 자식사랑’ 말이다. 21세기 이 시대를 ‘과잉시대’라고 정의한다면, 富者들의 자식 사랑은 선을 넘어너무 많이 달려갔다. 기우가 사장집에 가게 된 동기도 가정교사로서였다. 그 집에 첫 발을 디딜 때 기우는 가정부가 집 여기저기 박힌 화살들을 뺐는 것을 본다. 그 집 아들이 마구 쓰아댄 인디언 화살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자집의 어른들은 막내아들들 중

심으로 팽어처림 돌아간다. 영화 피날레도 엄마가 친구들을 불러 자기 아들 생일잔치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다. 동익 사장도 이에 질세라 아들을 위해 우수광스런 인디언 깃털모자를 쓰고, 운전수에게까지 ‘근무의 연장’이라며 강제로 쓰게 한다. 어쩌면 봉준호 감독은 富者들의 빛나간 자식사랑을 즐겨본 것인지도 모르겠다.

또 한가지 집고 넘어 갈 사항이 있다. 영화 곳곳에 배치한 계단에 대해서 이다. 사각형 구도 사장집 내부 우아한 계단, 지하실로 내려가는 좁고 어두운 시멘트 계단 ...등등. 계단이란 아랫층과 윗층을 연결하는 구실을 한다. 이 영화에는 여러 계단이 보이고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지만, 정작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 없다. ‘있는 자와 없는 자라



는 높낮이는 있지만, 위에서 밑으로의 일방 통행적 명령만이 존재하고 있다. 비(雨)도 ‘위에 사는 자’에게는 미세먼지를 씻어주는 청량제이지만, 저 아래 ‘빈손’ 동네에는 재앙을 가져오는 폭군이 된다.

마지막으로, 사건이 법적 사회적으로 다 마무리 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엄마와 아들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아들 기우는 자꾸 웃는다. 형사가 형사같지 않다고, 의사가 의사같지 않다고 심지어 여동생 기정의 영정 앞에서 웃는다. “헤헤헤헤” 그 ‘헤헤’ 속에 나는 무언가를 찾아냈다. 기우는 생각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꿈이고 연극이라고...이 엄청난 사건이 실제일 수는 없다고... 꿈이 깨고, 연극의 막이 내리면, 부자는 값비싼 의상을 벗어 던질테고, 지하 반지하 주민을 연기했던 사람들도 냄새나는 옷을 벗으리라.

죽었던 사람들도 부시시 일어나고, 칼맛은 사람들도 몸에 묻은 피를 지울 것이다. 그리고 다 같이 큰 상에 둘러앉아 축배를 들것이다. ‘이제 지상에서 우리의 연극은 끝났다. 헤헤헤헤. 계획은 무슨 계획, 무계획이 상팔자야, 기우야.



박준창 (인문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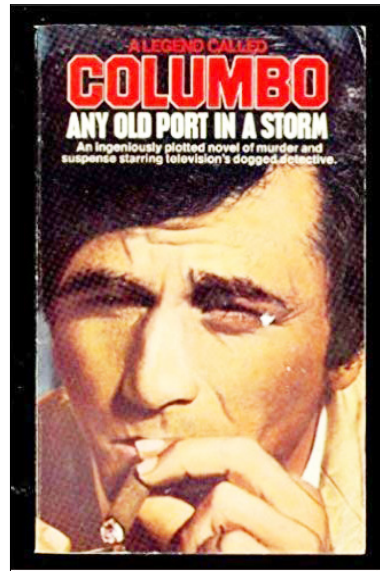


박변의 내멋대로 영화보기

형사 콜롬보

(Any Old Port in a storm)

지난 주 유튜브에서 지나 간 형사 콜롬보 시리즈 중에서 Any Old Port in a storm라는 에피소드를 봤다. 거의 50년전 드라마인데도, 세월을 건너 뛰어, 여전히 재미있어서, 연거푸 다른 에피소드 2편을 더 보았다.



형사 콜롬보 시리즈는 1970년 초부터 방영된, 50대 후반 이상 된 분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형사 TV 시리즈 물이다. 이 TV 시리즈는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 시청자들을 단번에 사로 잡았다. 이 드라마가 한국에서 처음 방영되었을 때, 나는 아직 고교생이었다. 그때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내 제일 친했던 친구 하나가 흥분해서 이 드라마 보았느냐고 내게 묻던 순간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우리 둘만 아니라, 형사 콜롬보를 보고 난 모든 시청자들이 다 함께 똑같이 전율하고 흥분했으리라.

빠진 차를 타고 다니며,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 말끝마다 sir, madam이라고 호칭하며 너무나 저자세인 그를 살인범은 당연히 우습게 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인범들은 절대로 콜롬보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살인 현장, 시간, 정황에 관한, 지극히 사소한 지나쳐 버리기 쉬운 사실들에 대해 질문하면서, 살인범이 콜롬보를 혼란시키기 위해 억지로 엉터리로 얘기한 것들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지적해 낸다. 그러면서 능청스럽게 그저 상사에게 올릴 일상적인 보고용으로 질문하고 확인한다며, 그런 저자세와 능청과는 또 다르게, 콜롬보는 영악하고 집요하다. 얼마나 범인을 괴롭히는지 범인에게 동정이 갈 정도이다. 더구나 범인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 그 유



명한 대사. "Just one more thing." "후유"하고 집요한 질문에 대해 잘 대답했다고 한숨 돌리는 순간 one more thing 하며 돌아 서서, 긴장을 놓아 버린 범인을 더 큰 위기에 빠져 들게 한다. 살인범들은 마침내 논리가 떨어지고, 결국은 항복하고 자백하게 된다.

내가 지난 주말 본 첫 편 Any Old Port in a storm라는 에피소드도 또한 다른 에피소드와 마찬가지로, 완벽해 보이는 살인을 저지르지만, 결국은 콜롬보의 간계(?)에 걸려 드는 불쌍한 와이너리 주인의 이야기다.

Carsini 는 포도원의 주인. 25년간 청춘을 바쳐 고급 와인 생산에만 몰두한 사람이다. 그는 와인업계 유행의 인물 (man of the year)로 선정되기 까지 한다. 그런데, 그의 이복 동생이 나타나 와이너리를 팔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그들의 부친이 죽으면서 형에게는 현금을, 동생에게는 와이너리를 물려 주었다. 형은 고급 와

인 생산에만 몰두한 나머지 와이너리 경영은 늘 적자이다. 매수인이 형이 경멸하는 싸구려 와인 생산업자라는 말에 분노한, Carsini 는 그 자리에서 동생을 죽이고 범행을 덮기로 한다. 그러나 수사 담당이, Carsini가 알아 본대로 ("You really are a sly one") 진정 영악한 콜롬보가 아니던가? 그는 살인자의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 경험, 열정을 간교하게 역이용, 그의 자백을 이끌어낸다.

사죽으로, 콜롬보의 이름 (first name)을 아시는 분이 있는지? 그리고, 늘 콜롬보가 언급하는 그의 아내, 그의 아내를 보셨거나 그녀의 이름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 있는지? 없을 것이다. 그의 이름도, 아내도 나온 적이 없으니. 또 하나, 1971년 최초 방영된 콜롬보의 제일 첫 편 감독은? 스티븐 스피버그. 역사적인 드라마의 첫 편을 후일 역사적인 감독이 된 사람이 했다. 몇 년 전까지 Netflix 에서 콜롬보 시리즈 거의 전부를 볼 수 있었는데 사라졌다. 현재는 일부를 유튜브로 볼 수 있다.

중신이사비 후원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락 (공대 48)

심상구 (상대 63)

정임현 (간호 72)

김보연 (간호 63)

*표시는 2차로 납부하신 중신이사

1월 후원자

*노명호 (공대 61)

*박중수 (수의대 58)

*최한용 (농대 58)

한광수 (의대 57)

김동희 (공대 66)

이영우 (문리 66)

홍청일 (약대 57)

김중호 (약대 68)

최선희 (문리 69)

차재호 (농대 84)

김권식 (공대 61)

김성범 (상대 50)

*표시는 1,000달러 이상 내신 후원자

중신이사비 (\$3,000 이상 / 89명)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지대 33) 오홍조 (지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청광 (상대 61) 이흥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제명해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 한홍택 (공대 60) 한효종 (공대 58)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중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행 (공대 48)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지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워싱턴주 이회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루이지애나 강영민 (문리 58) *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조지아 주종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필라델피아 서준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일리노이 김성구 (상대 63)

- 중신이사 (교인)

[중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 \$6,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전회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업소록 광고비

강신용 (사대 73) 240 이경희 (인문 83) 240 정세근 (자연 82) 240 강호석 (상대 81) 240 백승원 (의대 73) 240 신동국 (수의 76) 240 이원섭 (상대 64) 240 이준영 (지대 74) 240 이종우 (간호 69) 240 정재훈 (공대 64) 480 김원철 (농대 70) 240 염동해 (농대 74) 240 김원탁 (공대 65) 240 김일영 (약대 61) 480

광고비

C THOMAS PARK PEDIATRICS 240 서동영 240 뉴밀레니엄 뱅크 1,000 키스프로덕트 1,500 (1/8/20) 1,500 미래에셋 (~10/2019) 1,200 듀오 (10/24/19) 400 (11/14/19) 400 (12/11/19) 400 (1/17/20) 400 GILBERT RX INC(12/18) 240 이병준 (Seah) 1,740

나눔

차수만 (약대 71) 300 김정화 (음대 56) 25 박수영 (농대 53) 25

모교발전기금

남세현 (공대 67) 2,000 오인환 (문리 63) 300

박원준 (공대 53) 300 권철수 (의대 70) 100 오석일 (의대 64) 1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2019/7/1~2020/6/30)

장학금

이용락 (공대 48) 500 정진수 (공대 56) 425 오인환 (문리 63) 200 임필순 (의대 54) 100 이원섭 (농대 77) 100 황현상 (의대 55) 100 이준영 (지대 88) 100 문성인 (공대 88) 100 이규민 (문리 61) 25 조형원 500

브레인 네트워크 후원금

이재진 (문리 85) 100

지부 분담금 (2019/7/1~2020/6/30)

워싱턴 D.C. (1/17/20) 2,000

특별후원금

28차 평의원의 후원금

서울 총동창회 3,000 김동희 (공대 66) 100 박평일 (농대 69) 200 송웅길 (신문 69) 150 유성은 (의대 88) 1,300 유시영 (문리 68) 300 윤봉수 (간호 69) 100 한태진 (의대 58) 500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한경수 (문리 57) 300

신용남 \$16,947.74 서울 총동창회 3,000 뉴욕지역 동창회 2,000 뉴욕지역 골드클럽 2,000 이만택 (미주재단) 4,500 강에드 (사대 60) 500 광선섭 (공대 61) 300 권문용 (미대 61) 200 김광호 (문리 62) 1,000 김승호 (공대 72) 2,000 김중용 (사대 53) 300 김해암 (의대 52) 1,000 노명호 (공대 61) 1,000 노용면 (의대 48) 100 민준기 (공대 59) 300 박영철 (농대 64) 2,000 정선주 (간호 68) 300 박윤수 (문리 48) 1,200 박중수 (수의 58) 1,000 박희병 (치대 63) 200 백승원 (의대 73) 1,500 석창호 (의대 66) 400 선종철 (의대 57) 200 성기호 (사대 57) 200 손재욱 (가정 77) 500 송웅길 (대원 69) 500 송학린 (법대 59) 650 신중남 (농대 70) 2,000 연봉원 (문리 61) 300 윤상래 (수의 62) 1,000 윤은상 (상대 66) 80 이병준 (상대 55) 1,000 이상우 (의대 62) 100 이수호 (보건 69) 200 이용락 (공대 48) 650 이준행 (공대 48) 1,000 이충무 (의대 69) 500 정정욱 (의대 60) 200 조남천 (사대 59) 60 조달훈 (사대 66) 500 조상근 (법대 69) 1,000 최경석 (사대 80) 650 최수용 (상대 55) 500 최철용 (농대 57) 500 최한용 (농대 58) 1,000 최형우 (법대 69) 200 추재욱 (의대 57) 1,000 한경수 (문리 57) 300

한귀희 (미대 68) 1,400 한영수 (의대 61) 200 홍종만 (공대 64) 300 홍지복 (간호 70) 500 DOUBLE TREE (최용렬) 500

일반기부 후원금

남가주

노명호 (공대 61) 1,000 박중수 (수의대 58) 1,000 김정희 (음대 56) 500 이상진 (법대 57) 500 이범식 (공대 61) 200 임충수 (의대 57) 200 정재훈 (공대 64) 370 백우진 (음대 71) 200 유재환 (상대 67) 200 박민식 (수의대 65) 200 김영순 (음대 59) 200 김동석 (음대 64) 200 최용완 (공대 57) 200 양승문 (공대 65) 200 신동국 (수의대 76) 150 위중민 (공대 64) 100

뉴욕

최한용 (농대 58) 1,000 최수용 (상대 55) 1,000 이재량 (상대 61) 1,000 광송용 (의대 65) 500 강 에드워드(사대 60) 400 조명애 (간호 47) 375 광선섭 (공대 61) 200 김명철 (공대 60) 200 조태환 (상대 56) 200 광선섭 (공대 61) 200 류재은 (미대 71) 200 이강홍 (상대 60) 200 이정희 (사대 54) 100 허병렬 (사대 42) 25 이상원 25 민준기(공대 59) 25

뉴잉글랜드

김광수 (문리 77) 200

윤상래 (수의대 62) 500 김정환 (공대 52) 200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500 문성인 (공대 88) 50 차재호 (농대 84) 50

메사추세츠

김광수 (자연 73) 200

노스캐롤라이나

한광수 (의대 57) 700

버지니아

민홍기 (문리 61) 500

매릴랜드

김중호 (약대 68) 200 강길중 (약대 69) 200

시카고

이용락 (공대 48) 500 강영국 (수의 67) 200 김연화 (음대 68) 200 이성길 (의대 71) 200 소진문 (지대 58) 200 오동환 (의대 65) 200 김일훈 (의대 51) 200 한재은 (의대 59) 200

버몬트

최선희(문리 69) 100

아리조나

박양환 (약대 48) 200

오레곤

김상준 (상대 67) 200

오클라호마

김경숙(가정 70) 200 이상강(의대 70) 200 이상원 25 오하이오 성홍환 (수의대 75) 300

일리노이

김기훈 (상대 52) 200 오석일 (의대 64) 200

조형원 (약대 50) 500 홍정일 (약대 57) 200 이영우/김동희 (문리 66)/(공대 66) 김성범 (상대 50) 200

워싱턴 DC

권철수 (의대 70) 200 서윤석 (의대 62) 200 이영목 (공대 59) 200 이서구 (문리 61) 200

워싱턴 주

조지아

정량수(의대 60) 25 정경근 (농대 59)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정 77) 500 조정현 (수의 58) 200 이만택 (의대 52) 200 전무식 (수의 61) 200 지홍민 (수의대 61) 200 추기목 (수의대 68) 200 조정현 (수의 58) 200 정태광 (공대 74) 100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200 오석일 (의대 64) 200

커네티컷

김기훈 (상대 52) 200

휴스턴

진기주 (상대 60) 500

동창회비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 표: 2차 회기까지 내신 분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amounts for the SNU Alumni Association. Columns include donor names, amounts, and their home states (e.g., CA, NY, TX, FL, etc.).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aa.org

Table listing donors and their amounts for the SNU Alumni Association. Columns include donor names, amounts, and their home states (e.g., CA, NY, TX, FL, etc.).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Table showing donation options: 동창회 후원금 (with checkboxes for \$200, \$500, \$1,000, or more), 동창 회비 (with checkboxes for \$75, \$150, or \$3,000), 업소록 광고비 (with checkboxes for \$240, \$480), and 특별 후원금 (with checkboxes for Scholarship Fund, Charity Fund, Brain Network, and Mogo Development Fund).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orm for providing contact information: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 |
|--|
| 남가주 CA |
| 공인회계사 |
|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
|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
| T: 213-616-1390 |
|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
| AAMKO Consulting Co. |
|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
| T: 213-380-3801 |
|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
| 이강원 공인회계사 |
| 이강원 (인문대 76) |
| T: 213-387-1234 |
|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
|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
| 강호석(상대 81) |
| T: 213-380-5060 (LA, CA) |
|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
| STANLEY Cha, CPA |
| 차기민 (공대 85) |
|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
|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
|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
| 임춘택 공인회계사 |
| 임춘택 (상대 68) |
| T: 213-380-4646 |
|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
|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
| 김원철 (농대) |
| T: 213-380-4646 |
|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
| 권국원 공인회계사 |
| 권국원 (공대) |
|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
| 869 Irolo St., LA, CA 90005 |
| 기계 / 기술 / 전자 |
| Turbo Air, Inc. |
| 서치원 (공대 69) |
| T: 310-719-5422 |
|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
| Tayco Engineering, Inc. |
| 정재훈 (공대 64) |
|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
|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
| www.taycoeng.com |

| |
|--|
| Leedco Engineers, Inc. |
| 이종도 (공대 66) |
| T: 626-448-7870 / F: 626-448-3955 |
| leedco@aol.com |
| 3870 Baldwin Ave., El Monte, CA 91731 |
| Link TV Media |
| 김원탁 (공대 65) |
| O: 818-514-6780 / M: 818-720-2373 |
|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
|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
| 마켓 |
| Han Nam Chain Market |
| 하기환 (공대 66) |
| T: 213-381-3610 |
|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
| 변호사 |
|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
| 한태호 (인문대 75) |
| T: 213-639-2900 / F: 213-639-2909 |
|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
| www.haanlaw.com |
| 신혜원 변호사 |
| 신혜원 (사대 81) |
| T: 213-385-3773 |
|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
|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
| 이경희 (인문대 83) |
| T: 213-385-IMIN (4646) |
|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
| 부동산 |
| Team Spirit Realty |
|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
| 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 |
|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
| 식품 / 음식점 |
|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
| 이승훈 (상대 74) |
| T: 562-633-7400 |
|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
| 해태 USA (Haitai Inc.) |
| 정정우 (수외대 74) |
| T: 323-890-0101 |
|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
|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 |
|--|
| 의료 / 병원 |
| Seoul Medical Group |
| 차민영 (의대 76) |
| T: 213-480-7770 |
|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
| VIP 성형외과 |
| 최광휘 (의대 70) |
| T: 323-965-1717 / F: 323-965-1855 |
|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
| akchoi52@gmail.com |
|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
|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
| Christopher K.Chung MD |
|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
|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
| Beverly Cardiology Group |
| Il Young Kim MD (의대 65) |
| Diana Kim MD |
|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
|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
|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
| 정수만 (의대 66) |
| T: 714-539-6414 |
|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
| 의료 / 약국 |
| CareMax Pharmacy |
| 유창호 (약대 74) |
| C: 909-229-7777 |
|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 |
| Gilbert Pharmacy |
| 최무식 (약대 66) |
| T: 714-638-8230 |
|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
| 나성 약국 |
| 임낙균 (약대 64) |
| T: 213-387-3030 |
|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
| 의료 / 치료 |
| 황준오 DDS |
| 황준오 (치대 73) |
| T: 408-732-0493 |
|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
| Seonho Ha Prosthodontics |
| 하선호 (치대 81) |
|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
|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

| |
|--|
| 의료 / 동물병원 |
| Animal Medical Clinic |
| 신동국 (수외대 76) |
| T: 714-990-1411 |
|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
| Francis Animal Hospital |
| 최재현 (수외대 66) |
| T: 909-627-0951 / 909-627-0715 |
|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
|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
| 한상봉 (수외대 67) |
| T: 510-232-3465 |
|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
| Van Buren Animal Hospital |
| 오영문 (수외대 64) |
| T: 951-687-2630 |
|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
| 유통 / 운송 / 원자재 |
| SeAH Steel America, Inc. |
| 이병준 (상대 55) |
| T: 949-655-8000 |
|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
| 자동차 / 서비스 |
| A.P.W. 자동차 부품 |
| 서동영 (사대 60) |
| T: 310-753-9636 |
|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
| 최경석 (사대 80) |
| D: 213-262-3805 / M: 213-952-9911 |
|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
|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
| 기타 |
|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
| 박양중 (문리대 61) |
| T: 213-380-2775 |
|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

| |
|--|
| ACCU Construction, Inc. |
| 염동해 (농대 74) |
| T: 714-641-4730 |
|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
| 라 캐나다 한인교회 |
| 독곡원 (공대 65) |
| T: 818-790-7320 |
|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
|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
| 이상대 (농대 80) |
| B: 909-882-3800 / C: 714-323-8612 |
|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
| 북가주 CA |
| 정보 / 서비스 |
| 두리하나 결혼 정보 |
| 정지선 (상대 58) |
| T: 510-224-0760 / 1durihana@gmail.com |
|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
| www.2makes1.com |
| 뉴욕 NY·NJ |
| 공인회계사 |
| KL CPA & Associates LLC |
| 이경림 (상대 64) |
| T: 212-768-9144 |
|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
| http://klcpagroup.com/klcpa/ |
| 리테일 |
| New York Golf Center |
| 이전구 (농대 60) |
| T: 212-564-2255 |
|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
| www.nygolfcenter.com |
| 변호사 |
| 신용남 변호사 |
| 신용남 (농대 70) |
|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
|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
| 의료 / 병원 |
| 백승원 위장내과 |
| 백승원 (의대 73) |
| T: 201-302-9774 / 732-744-9090 |
|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
|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
| 석창호 위장내과 |
| 석창호 (의대 66) |
| T: 718-461-6212 |
|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

| |
|---|
| 이창석 내과 |
| 이창석 (의대 72) |
| T: 718-762-4400 |
|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
| 박범열 소아과 |
| 박범열 (의대 75) |
| T: 718-229-1188 / 718-899-4600 |
|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
|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
| 박종호 소아과 |
| 박종호 (의대 79) |
| T: 201-242-1002 |
|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
| 윤세웅 비뇨기과 |
| 윤세웅 |
| T: 718-335-3333 |
|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
|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
| 김치갑 통증병원 |
| 김치갑 (의대 73) |
| T: 201-541-1111 |
|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
|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
| 김승관 (의대 70) |
| T: 718-321-2870 |
|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
| 의료 / 치료 |
|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
| 김성래 (치대 76) |
| T: 201-750-0011 |
|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
| 의료 / 동물병원 |
|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
| 김기택 (수외대 81) |
| T: 201-814-0095 |
|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
| 유통 / 운송 / 원자재 |
| American Int'l Line, Inc. |
| 윤병하 (농대 80) |
| T: 718-995-7060 |
|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

| |
|--|
| 워싱턴 DC MD·VA |
| 기계 / 기술 / 전자 |
| Drivetech, Inc. |
| 엄달용 (공대 69) |
| T: 703-489-2474 |
|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
| www.drivetechinc.com |
| 식품 / 음식점 |
| 우래옥 |
| 백행남 (문리 60) |
| T: 703-827-7300 |
|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
| www.woolaeoak.com |
| 의료 / 치료 |
| 이준영 치과 |
| 이준영 (치대 74) |
| T: 301-220-2828 / 301-926-9692 |
|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
|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
|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
|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
| 정세근 (자연대 82) |
| O: 703-663-8400 / C: 703-785-8467 |
|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
| Fairway Asset Corporation |
| 남옥현 (경영대 84) |
| T: 301-279-6969 |
|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
| www.faclloan.com |
| 의료 / 치료 |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
| PAYABLE TO SNUAA-USA |
|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 |
|--|
| 필라델피아 PA |
| 건축 |
| Timothy Haahs & Asso. |
| 손재욱 (생활과대 77) |
| T: 484-342-0200 |
|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
| www.timhaahs.com |
| 의료 / 치료 |
| Blue Bell Family Dentistry |
| 김순주 (치대 95) |
| T: 610-278-1110 |
|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
| 식품 / 음식점 |
| 이즈미 일식당 |
| 최종문 (공대 61) |
| T: 267-408-7342 |
|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
| 오레곤 OR |
| 엔지니어링 |
| Flonomix Inc. |
| 박희진 (농대 78) |
| T: 503-648-0775 |
|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
| www.flonomix.com |
|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 지역 | 이름 | 전화 | Email | 회계연도 |
|---------------------------|------|-------------|--|----------|
| 남가주 S.CA/NV | 회장 | 한귀희 (미대 68) | 805-300-7977 khahn@4apec.com | Feb-Jan |
| | 차기회장 | 민일기 (약대 69) |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 |
| 북가주 SAN FRANCISCO | 회장 | 임준원 (공대 77) | 408-220-4260 joonwlm@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뉴욕 NY/NJ | 회장 | 조상근 (법대 69) | 201-913-0565 amcoinc@msn.com | July-Jun |
| | 차기회장 | | | |
| 뉴잉글랜드 MA/RI/NH/ME/VT | 회장 | 이강원 (공대 66) |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김정선 (문리 66) | 617-780-7205 jkim@systemic.com | |
| 북텍사스 LA/DALLAS | 회장 | 강성호 (수의 81) | 214-215-4447 oah9999@yahoo.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텍사스 MT/CO/WY/NM | 회장 | 최용문 (공대 77) | ymcgreencorp@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미네소타 MINNESOTA | 회장 | 송세진 (치대 78) |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샌디에고 SAN DIEGO | 회장 | 신욱인 (농대 87) |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 Nov-Oct |
| | 차기회장 | | | |
| 시카고 IL/IN/WI/MI | 회장 | 장윤일 (공대 60) | 630-305-8792 ychang@anl.gov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애리조나 ARIZONA | 회장 | 오윤환 (공대 56) | 520-271-2601 youn.oh@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앨라스카 ALASKA | 회장 | 윤재중 (농대 55) |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오레곤 OR/ID | 회장 | 전병택 (상대 65) | bryanchon@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오하이오 OHIO | 회장 | 이성우 (상대 72) |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워싱턴 DC DC/MD/VA/WV | 회장 | 정명희 (공대 71) |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박상근 (법대 75) |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 |
| 워싱턴 주 WASHINGTON | 회장 | 이명자 (간호 74) | drmiale@gmail.com | Jan-Dec |
| | 총무 | 임현민 (공대 84) |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 |
| 유타 UTAH | 회장 | 김한섭 (공대 93) |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조지아 GA/AL/MS | 회장 | 이영진 (공대 76) | 404-579-8282 youngjinlee9999@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김재호 (공대 80) | 404-372-2621 jhros@gmail.com | |
| 중부텍사스 MID-TEXAS | 회장 | |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필라델피아 PA/DE/S.NJ | 회장 | 조정현 (수의 58) | 856-685-9762 jcac4610@gmail.com | Jul-Jun |
| | 차기회장 | | | |
| 플로리다 FLORIDA | 회장 | 최희덕 (사대 72) |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캐롤라이나 SC/NC/KY | 회장 | 지원식 (공대 85) | 919-913-5570 wschee@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커네티컷 CT | 회장 | 유시영 (문리 68) | 203-305-3910 t60syu@gmail.com | Jan-Dec |
| | 차기회장 | | | |
| 테네시 TENNESSEE | 회장 | 김상호 (공대 86) | 856-386-1094 kimsh@ornl.gov | Jan-Dec |
| | 부회장 | | | |
| 하와이 HAWAII | 회장 | 성낙길 (문리 77) | 808-956-2611 nsung@hawaii.edu | Jul-Jun |
| | 총무 | 전수진 (석공 89) | 808-956-8283 soojin@hawaii.edu | |
| 하들랜드 IA/MO/KS/NE/AR/OK | 회장 | 이지현 (약대 77) | 913-814-9452 leech@umkc.edu | Sep-Aug |
| | 차기회장 | | | |
| 휴스턴 HOUSTON | 회장 | 구자동 (상대 70) |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 Jan-Dec |
| | 부회장 | | | |
| 캐나다 밴쿠버 | 회장 | 권오을 (상대 56) | y.kwon@griffith.edu.au | Jan-Dec |
| | 부회장 | | | |
| 캐나다 앨버타 | 회장 | 정중기 (공대 70) | 403-617-7585 movics@shaw.ca | Mar-Feb |
| | 부회장 | | | |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용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서리):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용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한경수 (문), 주재욱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
최한용 (농),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문현호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풍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 (상)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15th ANNIVERSARY SINCE 2005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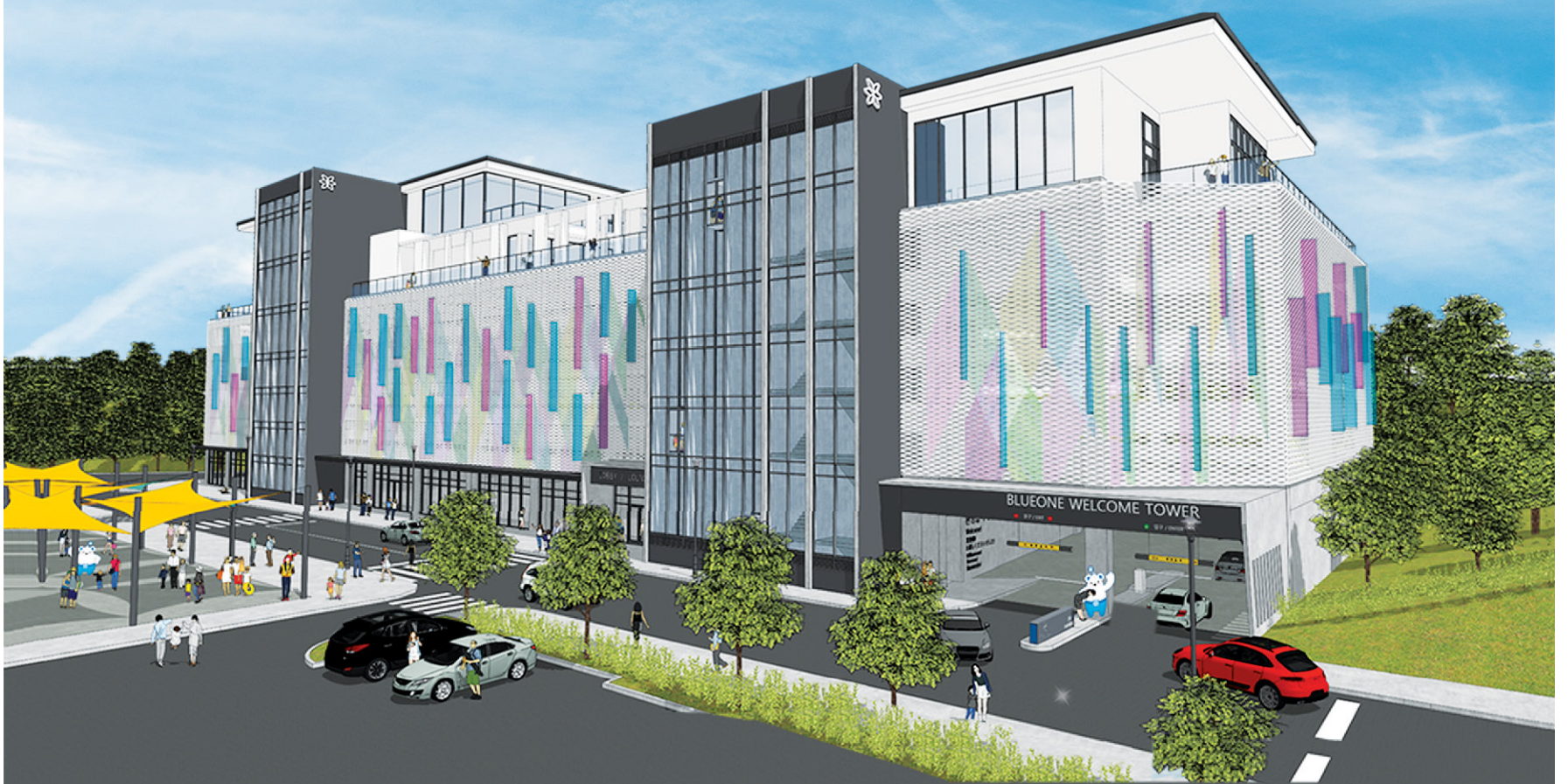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 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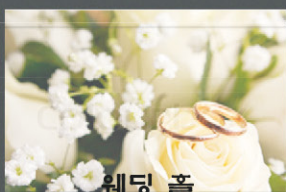
www.duouusa.net 213-383-2525(LA) 201-242-0505(NY)

손재옥 (가정대 77)
- 미주동창회 13대 회장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곳
내 삶이 빛나는 곳



카페 라운지



웨딩 홀



문화복합공간(경주시)



어린이집



주차장